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6 1981년8월31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August 31,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外換銀行·한일은행支店서 僑胞實業人에 3천9백만弗貸出후

融資回收 말썽

담보물놓고 銀行간에 분쟁事態까지 몰고와

◇… 미국에 나와있는 한국계은행 3개지점이 재미교포실업가에게 3천9백만달러를 융자해준 후 이에대한 자금회수를 둘러싸고 은행끼리 서로 담보를차지하기 위해 분쟁을 벌여 크게 말썽이 되고있다. 융자를 받은 교포실업인은 무역업자 하버드 지씨(LA거주)로 『페트로스』회사 대표로 되어있다. 하버드 지씨에 대한 융자내용은 ▲한국외환은행LA지점이 2천5백만달러▲한일은행뉴욕지점이 1천만달러▲한일은행LA지점이 4백만달러등 모두3천9백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사) …◇

▲하버드·지씨가 주식 92%를 소유한 린우드소재「퍼스트·스테이트뱅크」본점

외환은행 LA지점은 2천7백만달러중 1천만달러는 회수, 나머지 융자액도 거둬들이기 위해 법적수속을 밟던중 지씨의 재산일부(은행주식)가 이미 한일은행LA지점에 담보로 저당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외환은행LA지점은 하버드지씨에게 2천5백만달러를 78년 11월부터 80년 3월사이 5차례에 나눠 융자해 주었다.

당시 김상준지점장은 지씨로부터 예금증서 3천만달러, 저택4채, 대지 2개지역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내주었다.

그러나 80년 4월 김상준지점장이 돌연히 사표를 내고 그만둔후 후임인 최승낙지점장이 지씨에 대한 대출케이스에 의문점이 많아 자체감사를 실시, 담보물 능력에 이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자금회수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했다.

▲하버드·지씨에게 총 2천5백만달러를 융자해준 김상준전 외환은행 LA지점장.

외환은행측에 의하면 하버드지씨의 예금증서를 확인보증한 AMERICAN INTERNATIONAL BANK 와 METROPOLITAN BANK는 카리비안해에 있는 영국자치령 웨스트인디아섬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 출장조사결과 아메리칸인터내셔널뱅크는 이름만 있고 건물조차없는 은행이며 메트로폴리탄뱅크에서도 지씨의 예금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당황한 외환은행측은 대출환수작업에 나서 지씨로부터 1천만달러를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지씨가 LA근교 린우드에 있는 FIRST STATE BANK의 주식 92%를 소유하고 있는것을 알고 차압하려 했으나 이 주식은 한일은행측에 이미 담보로 저당되었음이 밝혀졌다.

외환은행측은 이 은행주식을 외환은행측이 차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한일은행은 자신들의 담보물로 설정되어 외환은행측이 손댈수 없다고 맞섰다.

한일은행LA지점(지점장·유시열)측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물을 타은행이 가져가려는것은 은행영업 윤리상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이 담보물(은행주식)이 한일은행의 빚을 갚고도 남는 정도의 가치를 지녔을 경우 외환은행측도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어 하버드지씨 융자사건은 은행간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

하버드·지氏 아는사람 극히少數

事業부진할때는 銀行이 도와주어야 튼튼한 담보 맡기고 돈 꾸었을뿐

▲한국계은행 지점으로부터 거액융자를 받아낸 화제의 인물 하버드·지氏。

미스테리에 싸여있는 하버드·지(HARVARD M. JEE)씨는 「페트로스·인더스트리스(PETROUS INDUSTRIES INC.)회사와 「그레이트·비젼」(GREAT VISION)회사 대표로서 전자제품 분야에 관련을 맺고있다.

지난 1978년 미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지씨는 미정계 인사들 모임에는 가끔 모습을 보였으나 한인사회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업가.

정력적 사업가형인 지씨는 중년의 나이로 그의 개인경력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주로 LA근교 롤링·힐즈의 자택에서 거주하며 주회사 「페트로스·인더스트리스」가 있는 LA남쪽 컴턴의 본사와 미주 수개처의 방계회사 「그레이트·비젼」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년 많은 시간을 한국과 기타 유럽등지에 사업차 여행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중남미 실업가들과도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주위에서는 보고있다.

봉황대기 慶北高에 선린에 6對4역전승

《서울 본사전화》 영광의 초록 봉황대기는 경북고에 돌아갔다.

경북고는 26일 밤 서울운동장 야구장서 야간경기로 펼쳐진 제11회 봉황대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결승전서 유충일을 중심으로한 철벽수비와 선린상고의 5실책에 힘입어 강호 선린상에 6대4로 역전승 71, 75년대회 우승에 이어 봉황대회사상 처음으로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황보운씨 개인 3위

북미주 트랩사격대회서

캐나다사격계의 중진선수 황보운씨는 지난22~23일 온타리오·인터내셔널·트랩슈팅협회 주최 올림픽·트랩슈팅대회에서 169점으로 개인부문3등을차지했다.

뉴욕주 대표등 30여명의 북미주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토·스포츠맨즈·어쏘시에이션(전 토론토·건·클럽)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조지·리어리(캐나다)가 189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단체전 에서는 황보씨등 4인조 온타리오팀은 뉴욕팀을 눌러 우승했다.

◇황보 운씨

한편 온타리오 트랩슈팅 연맹은 오는 27일상오10시 같은 장소에서 운·황보(Woon Hwangbo)트로피쟁탈전을 갖는다. 미국선수들도 참가하는 이 대회는 황보씨가 78년도에 기증한 에뉴얼·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황보씨는 상점을 경영하면서 매주1회 사격연습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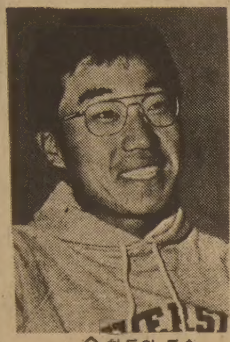
사격경기에서 트랩부문은 한국선수들이 가장 취약점을 갖고 있는 부문이다.

한국팀의 트랩사격선수는 대부분 재일동포선수들로 대치되어 왔다.

권총이나 소총사격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트랩경기는 원격장치에 의해 날아가는 접시를 맞추는 것이다

최동원 20만달러 낭설

브루제이, 스카웃 검토중



◇최동원 투수

토론토브루제이 직업야구단의 밥·프렌티스 스카웃부장은 26일"한국의 최동원선수와는 아무런 고용계약이 맺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본사의 전화문의에 이같이 답변한 프렌티스씨는 "브루제이 스카우터 웨인·몰간씨가 에드몬톤 세계아마추어 야구대회에 다녀와서 여러명의 선수들을추천 했는데 최선수도 그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프」부장은 최선수와의 20만달러 계약설은 전혀모르는 얘기라고 부인하면서 "이번 시즌이 끝난후 신인선수들을 전반적으로 검토, 그때 가서 최선수가 필요하면 직접 접촉 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프로구단들은 선수와의 계약이 끝날때까지 스카웃 내용을 비밀에 붙인다. 「프」부장은 "최선수가 틀림없이 훌륭한 투수이지만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그 정도의 투수를 여러명 발견할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선수는 이번 대륙간컵쟁탈 세계아마야구대회 에서 맹활약, 최우수투수 (우완)로 선발되어 「베스트11」에 끼었다.

일부 한국의 신문들은최근 최선수가 브루제이로부터 20만달러 고용제의를받았다고 보도했다.

팍스부모 성명발표

온 국민에 감사

테리·팍스군.

(뱅쿠버) 캐나다 영웅 테리·팍스군의 부모는 팍스가 죽은 후 처음으로 공개성명을 통해 온 캐나다국민과 팍스를 성원해준 언론에게 감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3세 생일을 한달 앞두고 지난 6월23일 사망한 「외다리 마라토너」「희망의 마라토너」팍스군의 죽음에 대해 "팍스의 마라톤은 그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의 노력의 댓가이다" 면서 "팍스가 간 뒤에도 우리에게 카드 전보등을 보내준 모든이에게 감사드린다"고 캐나다암협회에서 특별성명을 통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히 팍스의 병(암)을 끝까지 돌봐준 로얄·콜럼비안병원 스탭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크리브랜드씨 임명 미국무성 한국과장

(워싱턴27일=연합)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전 주한미대사관의 정치담당관 폰·크리브랜드씨를국무성 한국과장에 임명했다고 26일 발표했다.

크리브랜드과장은 대만과장이었으며, 교체된 로버트·리치 한국과장은 보직을 대기중이다.

크리브랜드 신임 한국과장은 카터대통령 시절 주한미 대사관에 근무했다.

담배값인상

145¢ 될듯

담배값이 또 오른다. 지난주 카톤당 레귤러 $9.12 킹사이즈 $9.22로 각각 10¢씩 올렸던 도매상들은 오는 9월초 카톤당 약 27¢씩 또 오른다고 밝혔다.

한인연합상사측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생산가격 인상과 세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난주 10¢씩 오른것은 그동안 도매상들의 경쟁으로 18¢씩 내린때문이었다 이로서 소매값도 1갑당 약 5¢씩 인상될 것이라고 교민도매상들은 내다봤다.

현재 시중에서는 25개피 라지·사이즈 130~140¢ 20개피 스몰·사이즈는 99¢~115¢까지 소매되고 있다.

도매값의 10¢ 내외 변동은 소매가격에 약 1¢ 정도의 영향을 주지만 이번 약37¢의 인상은 한꺼번에 5¢정도의 인상폭을 가져와 25개피 라지·사이즈는 1갑에 약 1달러45¢까지 인상될 것 같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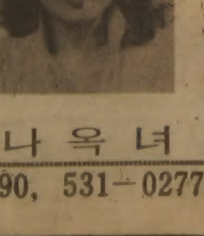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868-0922
R)622-5147

한국관

새로운 메뉴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서비스하고 있아오니 꼭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특별메뉴
곱창전골백반
생선초밥
꼬리곰탕
즉석불고기
민어매운탕
육회, 어초회

연말연시 각종연회,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대표 : 나 옥 녀
628 BLOOR ST. W. ☎: 536-0290, 531-027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국무성·국방성이견

미정찰기 피습사건 불분명

(외신종합)미정찰기 SR-71기가 북한의 지대공미사일 공격을받은 사실에대해 미국무성은"무법행위"라고 강력히 북한을 비난했다.

국무성은 이미 소련과중공에게 북한의 행위가 매우 위험한 장난이라는 것을 경고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무성은 북한행위는 계획된 행위라고 발표했으나 국방성은 이와 반대로 북한측의 미사일 발사연습일수도 있고, 북한영공침해를 알려주는 경고발사일 수도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27일 북한 미사일의 표적이 미 정찰기에 틀림 없다고 재 확인 했다.

국방성 발표에 의하면미사일은 정찰기 수마일 밖에서 폭발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한국정부및 각 정당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비난하는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북한의의도적 행위는 지난 12일 북한전투기들의 백령도 영공침해와 같이 침략행위" 라고 발표했다.

평양당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전쟁을 도발한다" 고 맹렬히 비난했다.

▲스위스에서도 다이아나붐—22세의 두크레트양이 찰스황태자비 다이아나를 가장 가깝게 닮은 여성으로 선출되었다.

우편요금 대폭인상?

1종 17¢가 30¢로 될듯

우편파업으로 말썽이던 캐나다 우편국은 이번에는 17센트짜리 1종보통우편물은 곧 30센트까지 올릴것 같다.

이 소식에 접한 앙드레·윌레 연방우정성 장관과 마이클·워렌 초대우편공사 사장은 이를 시인도 부인도 않했다.

정부는 오는가을 우편공사를 설립, 연간 약 400백만달러의 적자에 허덕이는 우편제도를 재정비 하기로했다.

워렌사장은"인상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한번 인상되면 3년안에 재인상은 없을 것이다"면서 "캐나다의 우편요금은 서방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말했다

우편성관리들은 우편배달 거리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넓지만 요금은 지나치게 싸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인상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의 17¢ 짜리 1종우편물은 무게 30g짜리 허용된다

같은 종류의 우편물은 영국에서 27¢로 60g 호주 29¢로 20g, 서독 30¢로 20g 일본 31¢로 25g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캐나다와 우편물소통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는 18¢이다

캐나다 스웨덴대파

10:3 연습3차전

「캐나다컵」쟁탈을 위한 캐나다대표팀은 25명의 선수로 추려진 뒤 위니펙에서 가진 스웨덴과의 연습경기에서 10:3으로 승리를 올려 다시 한번 세계하키 왕국임을 입증했다 26일밤 스웨덴과의 경기에서 캐나다는 NHL 최고의 득점선수 마이크·보시(뉴욕·아일랜더스 라이트윙)의 2점을 비롯 대거 10점을 올려 대부분이 NHL 선수로 구성된 스웨덴팀을 가볍게 물리쳤다

미국과의 1, 2차 연습경기에서 겨우 5:2 6:5로 이겨 우승의 전망을 어둡게 했던 캐나다는 미국보다 강하다고 알려진 스웨덴을 가볍게 물리침으로써 캐나다하키의 우위를 보여줬다

캐나다팀은 에드먼턴서 29일 소련과의 연습경기로 Exbition게임을 마치고 9월1일부터 본게임에 들어간다 9월1일 캐나다와 핀랜드의 게임은 CTV를 통해 8PM(토론토시간) 부터 TV방영될 예정이다

'81 Canada Cup

〈바로잡음〉

22일 자 독자시「8월」의 작자명은 정봉희의 오기였음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㊾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그들은 지저분하고 연약하고병든 몸골로 매일을 무감각하게 보냈고, 극도로 필요한때 이외에는 좀더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백인들과 거의 일세기를 두고 접촉했지만 아직도 면역을갖고있지 못했다.

이덴 엘멜리 사람들이굶어죽기 시작한 것이 거의 1세기가 지난 요즈음 부터인 것이다.

굶주림은 이제 겨울음식이 80퍼센트가 흰 밀가루와 아주적은 돼지기름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물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식사를 시작한 때부터 처음으로 닥쳐왔던 것이다.

밀가루떡과 하루세끼 물고기만 먹고 차로쓸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3대째 낳고살다가 죽어갔다.

한때는 오직 주식이었던 사슴의 고기와 기름을 이제는 거의 먹지못한다. 세대가 바뀔수록 그들은 쇠약해졌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줄어들어 갔다.

어떤사람들은 굶어서 곧장 죽어갔고, 그들의 몸은 바짝마른 피부에 딱딱한짐짝처럼 오그라 붙었고, 그들의 뼈는 양피지를 통해서 보는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들여다 보였다.

그들의 대부분은 피를토하는 기침으로 죽거나 혹은 목구멍을 막는 훤히 들여다 보이는 종양, 또는 바싹마른몸에 여러군데 나있는 큰 상처로 죽어갔다.

그들역시 오랫동안 굶어서죽은 희생자들인 것이다. 무역소가 열리기 전에는이할미우트 사람들처럼 사슴을먹고 살았다.

브로췌트가 고기상점으로서 허드슨베이 캠파니에 의해 세워졌는데 거기를통해서나온 사슴고기를 페미칸(얇게 저민고기를 말렸다가 과일이나 지방을섞어 굳힌식품)을 만들수 있다. 해서 버팔로가 이미 멸종이 되어 고기가 귀한 서부지역으로 수출 되었기 때문에 이덴 사람들은 그때부터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들은 무역소 사람들에 의해서 여름에 바렌으로나가 사슴을 잡아먹고 살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고, 대신 밀가루나 생선을 외상으로 먹고사는법을 배웠으며, 백인들이 원주민과 늘 거래하는 방법인 파렴치한 외상법에 묶여 헤어나지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먹기위해서가 아니라 고기거래소를 위해서 사슴을 잡도록 압력을 받았고, 너무나 많이 잡아서 결국 버팔로의 운명처럼 멸종되어가기 시작했다.

이덴엘멜리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사슴을 먹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는데 무역소 사람들의 수익이적어지기 때문이었다.

밀가루 한부대를 팔면, 75달러가 남았고, 설탕과베이킹파우더, 자질구레한 장난감에도 수없는 흑자를냈지만 원주민들이 사슴을먹으면 전혀 수익이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불안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만든 숙명적이며 무감각한 오늘날 그들이 겪는 질병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하여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게 만든 쇠약한 육체, 이 두가지는 그곳에 그림자처럼 덮쳐있는 굶주림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태어나면서 받은 사슴을백인들에게 팔아먹고 협잡을한 이멘 사람들은 수림에서재빨리 사라졌고 해마다 기운 센 사람들은 적어지고 사냥꾼은 더 적은 털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마다 더 많은 여인들이 기침으로 피를 토해서 흙이 묻어 더러운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뱉았다

겨울에는 카리브 가죽으로 만든 따뜻한 옷을 입지 못하고 무역소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고 영하의 추운 겨울을 떨며 지내고 여인들은 봄이 오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밀가루를 베이킹파우더에 섞어 먹인다

여름이 오면 남자들은 그들이 배운 어망을 들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 매일 먹는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긴 겨울밤을 위해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갖는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굶어 쇠잔한 육체는 질병의 잔인함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덴 사람들은 노스·웨스트·테리토리 전역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종족중의 한 예지만 모두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멘 인디언들의 조용한 캠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테의 텐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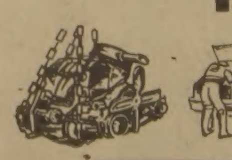
주간女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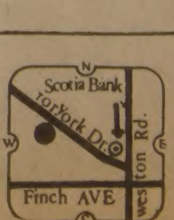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NORTH YORK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송 대 헌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내년 公務員봉급 15%인상

企劃院확정 9%一率…6% 下厚上薄

정부는 26일 내년도공무원봉급을 평균15%인상키로 확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내년도예산안試案에 대한 청와대보고에서 15%와 18%의 두가지 공무원봉급인상案을 마련, 보고했으나 不況에따라 불투명한세입전망과 정부공무원들이 긴축과 근검절약을 솔선해야한다는 점에서 15%선으로 결론이 났다.

情報費·學資金도 확대…下位職 18%까지 引上되는 셈

정부는 이에따라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봉급을 9% 인상하고 나머지6%의 인상분은 현재의 직급별 봉급불균형을 개선하기위해 下厚上薄원칙에따라 지금까지 서기관급(4급)이상에만 지급하던 정보비지급범위를 확대, 모든 공무원들에게 직급에따라 사무관급5만원, 主事級이하 각3만원씩의 정보비를 매달 지급하고 하위직자녀들에대한 學資金보조와 각종수당지급도 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들어 공무원봉급은 서기관급이상의 상위직이 평균10%이내, 사무관급이하의 하위직은 평균15~18%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규모는올해의 7조8천5백억원보다 24.8%가 늘어난 9조8천억원선으로 일단잠정조정, 앞으로 稅制改革에따라 아직 유동적인 재무부의 稅收전망과 함께 계속 절충해나가도록 했는데 民正黨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예산규모는 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韓日관계 대책검토 관계장관 참석

政府는 26일 高位對策회의를 열고 지난주 韓日外相會談의 내용과 경과를 보고받고 安保經協의 차원에서 韓日公共차관을 추진하는 문제등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상오 南惠祐국무총리, 申秉鉉부총리, 盧信永외무, 徐錫俊상공, 李承潤재무부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2시간동안 열린 高位대책회의에서는 盧장관의 회담결과에대한 보고를 토대로 이번外相회담의 성과를 면밀히분석, 검토하는 한편 오는9월 10, 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열리는 韓日정기각료회담에 대비, 정부측 방안과 대책이 협의된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저Ⅱ、土星環속 통과

4년만에 10萬1千㎞ 最近接 (어제下午 1 시24분)

◇土星C環에 焦점 美토성탐색선 보이저 2號가 23일 토성으로부터 1백70만마일 떨어진 곳에서 찍은 토성사진。이사진은 토성의 C環에 焦점을 맞춘것으로 왼쪽끝대기에 보이는것이 B環이다。【패사디나26日AP電話=聯合】

誤差2.5초…구름 電送

神秘음향、太陽風뚫는소리

뒤쪽선 交信두절…86년엔天王星、89년엔海王星으로 無限航進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6日=로스앤젤레스支社 朴琭기자】「항해자」 보이저2호는 26일 하오1시24분 (한국시간) 환상의 별 토성에 10만1천㎞로 최근접했다. 우주의 신비를캐내고 있는 보이저2호는 1시간27분뒤인 하오2시48분 부터 황금의 아름다운 띠를 두른 역사상 가장 선명한 토성의 사진을 패사디나의 제트추진연구소에 보내기 시작했다.

보이저2호는 지구를 떠난지 4년만에 그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우주탐색의 새장을 열어놓았다. 과학자들은 보이저2호가 성공적으로 토성 최근접에 도착, 19억8천4백만㎞떨어진 지상관제소에 신호를보낸후 토성의 뒤쪽 「고리E」(E環)부분으로 이동, 고리(環)를 위에서 아래로 관통했으며 토성탐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보이저2호가 고리를 관통하는 사이 지구와의 교신은 끊겼다.

「고리E」는 8백㎏ 정도의 얼음덩어리들로 구성돼있어 이가운데 하나라도 부딪치면 보이저2호는 산산조각나게되어있으나 다행히 충돌이없어무사했다.

보이저2호는 이날하오 토성을 벗어나면서 天王星을향해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여행길에 나섰다. 그가 5년후 天王星에 도달할때 또 다른 우주의 신비가 인간앞에 모습을 보일것이다.

보이저2호의 토성근접 비행은 당초의계획에 불과2.5초의 오차밖에나지않은 초정밀 우주여행이었다. 한 과학자는 『우리는바늘로 우주를 꿰뚫었다』라고 표현했다.

한편 보이저2호가 토성의 첫째관문 「소리의 장벽」을 뚫을때 신비스러운 「우주音響」을 지상관제소에 보내와 과학자들을 흥분시켰다. 휘파람소리와 전자오르간의 협주음 같은 소리를 과학자들은 이곳에 모여있는 보도진들에게 녹음으로 들려주자 보도진들은 「와!」하고 함성을 터뜨렸다.

과학자들은 이소리가 태양풍과 토성의 자장이 부딪칠때일어나는 弦衝擊(Bow Shock)으로 『기타의 현이 퉁겨질때 나는 충격음과 같은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성에 최근접하기직전 보이저2호는 토성위성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타이탄의 선명한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분석결과 타이탄은 두께 4백80㎞의 짙은 구름으로 덮여있는데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대기가 거의 질소성분으로 되어있어 지구대기권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해줄수있는 획기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보이저2호는 토성궤도 안에서 시속8만6천㎞로 섬광처럼 달렸다.

太陽系 탐색 5년후 계속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6日AP=聯合】 제임즈·베그스 美항공우주국(NASA)신임국장은 25일 美우주탐험선 보이저2號의 토성근접비행과 때를 같이해 미국은 앞으로 5년후 태양계탐색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베그스국장은 자신은 미의 우주를 탐험할 강력한 과학적 계획이 없는 NASA란 생각할수도없다고말했다.

한편 에드윈·미즈 백악관 수석고문도 이날 레이건 대통령을 대신, NASA의 패사디나 제트추진연구소를 방문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의 우주탐험, 특히 우주수송체제에 크게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動力源은 小型原子力발전기

보이저Ⅱ 構造·장비

보이저2호가 지구를 출발한것은 77년9월20일, 보이저1호보다 16일먼저 발사된 보이저2호는 79년4월25일 木星을 통과하고 1호보다늦은 4년만에 土星에 도달한 것이다.

보이저의 船體는 무게1톤 미만에 3부분, 즉 지구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안테나부분 두뇌격인 콤퓨터부분 그리고 모든 과학자료를 수집하는부분으로 구성돼있다. 動力源은 소형원자력발전기. 2대의 카메라외에 자외선분광기와 적외선분광기를 가지고있다.

鮮明한寫眞에 흥분…모든假說 뒤집힐지도

보이저計劃 分析總責任者 스미드博士、本社LA支社기자와 會見

"얼어붙은土星등 太陽界엔 生命存在 않는듯 臨床學的 신비 解決…낭만 잃는것같아 섭섭"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6日=로스앤젤레스支社 朴琭기자】 보이저2호의 土星접근에 관한 10일간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보도진들의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사람은 브래드포드·스미드박사(49·아리조나 주립대학 천문학교수)다. 보이저 계획의 하이라이트는 1981년 9월28일까지 보이저 1호와 2호가 보내오는 8만여장의 사진들, 스미드 박사는 바로 이 보이저사진분석팀의 리더다. 섭씨30도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 25일, 보이저 토성접근기간동안 삼엄한 경비아래 통제구역이 된 컨트롤·센터 옆 3층사무실에서 만난 스미드박사는 흥분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흥분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지난11월 보이저1호와 비교하면 이번 보이저2호의 주요임무는 무엇인가.

▲土星環과 土星의 위성들에대한 보다 면밀한 탐색이라고 할수있다. 특히 보이저2호는 土星에 훨씬 가까이 다가가 놀랍게 선명한 사진들을 보내올 것이며 土星環아래쪽의 그늘진면도 촬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이저1호이후 土星環의 복잡성에대해 사실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가져다준 결과에대해 걱정마저 하고있다.

예를들어 우리는 지금까지 고리와 고리사이의 틈새는 작은 달(MOONLET·얼음덩어리)들이 채우고 있다고 가정해왔는데 아직 어떤 사진으로도 이 작은달들을 발견치 못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는 이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새로 세워야할지도 모르는것이다. 또한 보이저2호는 1호가 지나쳐버린 土星의 위성들을 촬영하고 있다. 그중하나가 어제 처음 그 이상한 모습을 드러낸 하이페리온이다. 마치 땅콩같기도하고 햄버거 고기모양을 한…

이번 보이저2호는 土星과 土星고리, 그리고 土星의 17개 달에 관한 총1만8천5백장의 사진을 10일동안 찍게 된다.

— 이 우주탐험의 근본적목적은 무엇인가. 일반인이 관심을 가질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

▲이 우주탐험으로 우리는 太陽界의 근원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될 것이다. 45억년이 된 이 태양계가 어떻게 진화되어왔는가를 우리는 연구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보다 좀더 실질적인 목적을 들수도있다. 다른 유성에대한 연구는 지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 지구의환경은 무섭게 오염되고 변화하고있다. 이것이 우주의 대기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를 알아내는것도 하나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도 말할수있다. 관광객으로 다른나라를 방문하듯 자신이 사는 세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혀 분석도 할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방문해야하는 것이다.

— 다른 유성에 생물이존재한다는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직은 없다. 아마도 태양계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이탄(土星의 위성)이 지구처럼 공기를 가진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온이 너무 낮아 얼어붙어 있기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개인적으로는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어디엔가는 생물이 존재할 것으로 믿는다.

— 우주탐험선(보이저1·2호)이 파괴되거나 지구와 교신이 끊기는 것은 언제쯤으로 추정하는가.

▲정확히는 알수없다. 그러나 우주선은 파괴되기보다 정처없이 떠다닐 확률이 더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주공간에는 선체를 파괴하거나 노쇠케할 마찰이나 방해물이 별로 없기때문이다. 지구와 교신이 끊어지는 시기도 추정키는 어렵지만 1990년대가 넘어서일 것으로 본다.

— 보이저프로젝트로 토성주위에서 8개의 새위성이 발견됐다. 먼저부터 알려진 9개의 위성들은 이미 타이탄 혹은 하이페리온등의 이름을 갖고있는데 1980S6등으로 불리는 새위성들은 언제 이름을 갖게 되는가.

▲1982년 8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천문학회 회의에서 이름을 각기 결정하게된다.

— 토성위성뿐아니라 環의 이름도 붙여주어야 한다. 새로 발견한 본학구와 環의 벗겨졌다. 이 토성의 신비는 상당히 점지휘한 파이프로젝트를 소직 갈은…

▲나는 지난20년동안 천체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관찰하고 또 관찰했다. 그 오랜세월동안 한순간에 풀리는데 의문이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그러나 한참 내마음속에 자리잡아온 로맨티시즘은 나를 슬프게도한다. 이제 꿈이 사라진것같다. 신비와 환상적인 태도로 하늘을 바라보아야하는 것이다.

待機人力、조사·연구活用

政府機構축소따라 教育훈련·他機關파견도

정부組織정비指針을확정, 各部處에 시달한 총무처는 기구축소에따라 발생케되는 待機人力의 활용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총무처는 조직정비로 上位職數가 대폭 줄어들게됨에따라 공무원의 昇進기회도 줄어들어 근무의욕이나 士氣저하가 우려되고있다고 판단, 승진기회를 補強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되고있는 昇進補強策은 지금까지의 승진개념을 고쳐 반드시 上位계급으로의 진출만이 승진이아니라 같은 職級을 가지고있더라도 특정한 직책에 補職되는경우 이를 승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같은서기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개편되는 大課의 과장으로 보직되거나 2、3급(이사관·부이사관)이 大局의 국장으로 보직되는경우 승진으로 간주하는것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돼各部處의 大局이나大課의국장·과장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은 더큰 권한과함께 책임을지게돼 그와같은 직책을 갖지못하게되는 공무원에비해 報酬나 待遇등 여러가지면에서승진한 것과같은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待機人力의 활용을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기구축소후에도 超過定員을 운용하면서 직업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구·조사업무를 담당시키거나 ▲교육훈련기관에의파견 ▲他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의파견등으로공무원신분을 계속유지케한다는 것이다.

연구나 조사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대상자는 專門職에 있었거나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교육훈련의 경력이적은 사람에게는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연수케하며 또교육훈련경력이많은 사람은 大韓商議나 全經聯등 경제단체에 파견, 現場경험을 쌓게한다음 다시 정부로 불러들여 그 지식을 활용케한다는것이다.

한편 관계자는 정부기구축소후 超過定員을 운용하다 定員을초과한 인원만큼이 불리적이아닌 정상적인 형태로 퇴직, 축소된 정원수준으로 내려앉게 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大入 體力검사 응시자 61萬4천여명으로 밝혀져

작년보다 6%증가

82학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체력검사응시자수는 61만4천2백80명(재수생·검정고시합격자포함)으로 81학년도의 57만8천6백96명보다 3만5천5백84명(6%)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내년도 대학입학 예상인원(교육대 전문대 포함) 30만5천2백64명과 고해볼때 82학년도 대입경쟁률은 2대1이 되며 금년의 경쟁률 1·8대1보다는 조금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82학년도 고교진학을 위한 체력검사응시자수는 82만2백5명으로 81학년도 78만4백80명보다 3만9천7백25명이 늘어났다.

26일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대입체력검사 응시자수는 남학생 42만6천9백45명, 여학생 18만7천3백35명이며 그중 재학생은 39만7천5백95명(남자26만6백22명·여자13만6천9백73명)으로 81학년도보다 1.6%가 늘어났고 재수생은 20만7천52명(남자15만7천8백48명·여자4만9천2백4명)으로 81학년도보다 1만7천3백36명이 줄어들어 재수생감의 현상을 보였다. 또 검정고시합격자는 9천6백33명, 지체부자유자는 1천8백37명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각각 1천명이상씩 줄어들었다.

한편 고입체력검사 응시자는 남학생이 44만5백74명이고 여학생이 37만9천6백31명이며 그중 재학생은 남자가42만7천4백8명, 여자37만5천2백41명으로 각각집계되었다.

한편 문교부는 대학및 고교입학전형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오는9월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일제히 실시한다고밝히고 검사종목은 예년과같이 ▲1백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던지기 ▲윗몸일으키기 ▲턱걸이(남자)또는팔굽혀매달리기(여자)의 5개종목이며 총점은 20점만점이다.

社会漫評

군살좀 빼기로…

地平線

6·25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윌리엄·딘少將이 별세했다. 『컴온! 보이즈 레츠고!』 6·25때 大田에들어온 美24師團司令部가 피퇴되면군 탱크에 포위되었을 때 딘 師團長은 직접 바주카포를 들고 탱크사냥팀을 만들어 앞장섰다. 師團長은 別名인 황소그대로의 勇將이었다. 피퇴군 탱크부대를 무찌른 공로로 미의회의 공로훈장까지 받은 그는 大田의 奮戰에도 不拘하고 大田이 점령되자 딘少將은 20일간 식량없이 산을헤매다가 사로잡혀 3년동안 北地에서 포로생활을 해야만했다. 53년에 송환됐을때 그는 「나는 전쟁영웅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수치스런 일개 병사일뿐」이라고 겸손해 했으나 55년 퇴역당시 백악관 스웰·테일러 장군으로부터 미국의 가장위대한 영웅중의 한사람이란 칭송을 받았다.

▼딘 少將에 얽힌 에피소드는 많다. 배포가 큰 將軍이었지만 大田을 死守하고 있을때, 戰況이 不利한것을 모르고 있던것은 아니었다. 하나「부대의 士氣를 높이기 위해, 한국군지휘관들에게 모범을 보여 신뢰를 얻기위해」 大田을 死守해야만 했었다고 후일 그는 술회한바 있다. 6·25전에 駐韓美軍政長官을 지낸 그의 경력은 누구나 다 안다. 在日美7師團長과 8軍參謀長을 거쳐 6·25가 일어났을때는 일본 九州에서 24師團長으로 있었다. 한국을 너무나 아끼던 그로서는 자기의 목숨보다 한국전선을 더 소중히 했는지 모른다. 전쟁초기 8軍司令官이던 워커中將이 大田까지와서 撤收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당부해도 황소같은고집으로 그곳을지켜 戰勢逆轉의기회를 만들려했던것이다.

▼딘少將은 자기가 직접데리고있던 통역 지미金(金吉俊)을 양아들같이 무척 사랑했다. 戰車사냥팀을 만들때도 함께 싸운 지미 金은 딘少將과 더불어 산골에서 헤매다 떨어졌는데 다행히 미군부대를 만나 구출되어 東京의 연합군사령부에 근무했으나 교통사고로 죽었다. 포로생활에서 풀려나 수척한 몸으로 東京에입원한 딘將軍은 마침 그를 찾아온 지미金의 딸 헬렌을보자 범벅이 되어 울어안으면서 뺨을 비비고 눈물을 흘렸다는데 人情이란 그런 것인가. 「노兵은 不語兵이라」 하지만 將軍의 晩年은 쓸쓸했었다. 이 땅에서 포로생활까지 겪으며 싸웠던 지휘관 딘少將의 訃音을 들으면서 황소같던 그 勇將의 모습이 새삼 잊혀지질않는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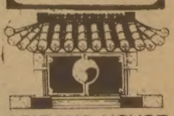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강 사 :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9월10일(목)오후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오후2시

※청소년을 위한 영어설교
12일(토) 오후1시

장 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버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 「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버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후레밍돈·팍 샤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駐日美軍 日防衛役아니다

太平洋·印度洋 美軍지원 역점

웨스트 美國防次官補 증언

【東京25日=聯】방위력증강을 비롯 당연한 역할분담노력에 소극적인 일본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시스·J·웨스트 미국방차관보(국제안보담당)가 駐日미군의 역할과 관련, 『駐日미군은 「일본방위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西태평양과 인도양의 미군지원에 역점을 두고있다』고 증언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을 끌고있다.

일본 共同통신이 25일 워싱턴발로 보도한바에 의하면 웨스트차관보는 지난 6월 상원군사위에서의 그의 차관보 지명인준 청문회증언에서 『공평한 역할분담을 하지않는 일본에게는 경고의 표시로 駐日미군병력의 삭감철수등의 압력을 가해야되지않겠느냐』는 칼·레빈의원(民)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그와같이 밝혔다. 그러나 웨스트차관보는 『駐日미군의 그와같은 성격상 병력삭감은 일본보다는 미국자신에 이롭지않다』고 말했다.

웨스트차관보의 증언은 결과적으로는 駐日미군의 존재를 인정했으나 지금까지처럼 『일본방위를 돕는다는 측면보다도 미국자신의 국가이익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소극적인 역할분담노력과 관련하여 유사시 지원문제를 포함, 일본방위를 둘러싼 미국측의 냉담한 자세를 드러낸것으로 풀이된다.

南阿共·앙골라戰가열

南阿共 탱크·전투기동원 3백km 진격

【리스본·요하네스버그26日=聯】앙골라침공 이틀째인 25일 南阿共和國軍은 2개기갑부대와 미라지전투기를동원, 앙골라영내 3백km까지 깊숙이 침공을 감행, 앙골라군과 치열한 전투를 계속함으로써 南阿共과 앙골라전투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이에 앙골라정부는 25일 군총동원령을 발표했다고 앙골라의 안고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앙골라 국방성발표를 인용, 南阿共의 2개기갑부대가 이날 보호령인 나미비아로부터 앙골라 국경 2백km영내의 카하마시등 2개지역으로 침범해왔으며 이중 한부대는 탱크32대와 각종차량82대를 장비하고 있다고전했다.

이 발표는 또 南阿共이 지상군의 침범에 앞서 6대의 미라지전투기가 국경으로 부터 3백km떨어진 치멤바와 카하마를 폭격했으며 앙골라군은 南阿共軍과의 전투에서 적군 4명을 사살했다고 전했다.

앙골라국방성 대변인은 또 모든 군부대를 재편성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南阿共군에 맞서기 위해 앙골라주둔 쿠바軍을 동원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호세·산토스앙골라 대통령은 이날 발트하임유엔사무총장에게 긴급전문을 발송, 약 4만5천명의 南阿共군과 용병및 앙골라반정부 게릴라들이 국경에 집결돼있다고 밝히고 南阿共군철수를위해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말리아-리비아 외교관계 단절

【모가디시오25日(소말리아)AFP聯=聯】소말리아 정부는 25일 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소말리아의 단결과 독립을 와해시키려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모가디시오주재 리비아대사관을 48시간내에 폐쇄하도록 명령, 리비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

이와함께 소말리아 외무성은 트리폴리주재 대사관원들에게도 귀국령을 내렸다고발표했다.

이날 소말리아관영 손나통신을 통해 발표된 외무성성명은 가다피원수가 그간 직·간접으로 소말리아의 주권을 침해해왔기때문에 이에대한 보복으로 조치를취했다.

리비아、바軍에 基地제공

地中海서의 美威勢 꺾기위해

【로마25日AP=聯】리비아는 미국이 지중해에서 보이고있는 『힘의 오만성』을 꺾기위해 소련을 주축으로한 바르샤바조약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할수도 있다고 리비아인민위원회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알리·아티아 인민위대변인은 이날 로마주재 리비아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중해에서의 소련의역할은 미국의 『힘의 오만성』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전제, 어떤 나라도 리비아가 바르샤바조약군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티아는 리비아와 소련양국은 외부의 간섭을 방관할수없는 우호협력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리비아인민위가 리비아영토에 소련군사기지를 두기로 결정한다면 아무도 이를 저지하지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3者회담 파키스탄首相 반대

【이슬라마바드25日(파)聯】아가·샤히 파키스탄외상은25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을 강력비난하는한편 아프간의 장래문제를 토의하기위한 파키스탄·印度·아프간3者회담을갖자는 아프간측제의는 수락할수 없다고 밝혔다.

샤히외상은 이날 파키스탄을 방문한 소련부외상 니콜라이·피루빈을 위해 베푼 오찬석상의 연설을 통해 파키스탄의 對外정책은 국가안보를 공고히하고 비동맹국가로서의 역할을 고수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나미비아獨立」분쇄 속셈

—南阿共 機甲부대 앙골라侵攻의 背景

南阿새불씨…黑白전쟁조짐

유엔警告에도 惡名높은 人種차별정책 계속 / 앙골라駐屯 쿠바軍개입땐 국제代理戰 우려

南阿共기갑부대가 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국경을 넘어 앙골라영내 3백km까지 침공한것은 그양상이 대규모 이동작전이란 점에서 남부아프리카에 黑白전쟁이 터질 우려를 던져주고있다.

南阿共측은 앙골라에 본부를두고 나미비아 무력독립항쟁을 벌이고있는 西南아프리카민족연합(SWAPO)게릴라거점을 소탕한다는구실을내세우고있다.

南阿共과 SWAPO는 15년에걸쳐 무력충돌을 계속해왔고 南阿共은 SWAPO게릴라를 추적、수시로 앙골라 영내를 침공해 왔다。과거 월남이 베트콩聖域을 소탕하려 캄보디아를 쳐서 침공했던것과 같다。

하지만 南阿共은 이번 앙골라침공에 탱크를 앞세우고 공군의지원을 받으며 2개기갑여단의 대부대를 동원했다。단순한 게릴라소탕이 아니라 갈수록 드세지는 나미비아의 독립의지를 꺾고 SWAPO를 지원하는 앙골라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게 南阿共의 속셈이다。

이에 대응하는 앙골라도 만만치 않다。즉각 전군동원령을 내리고 발트하임 유엔사무총장에게 긴급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유엔헌장51條에 규정된 自衛權을근거로 일전을 불사할것이고 여차하면 앙골라주둔 쿠바군까지 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쿠바군은 74년 앙골라독립이래 2만명이 주둔하면서 현앙골라 마르크스주의 정권의 수호자역을 해오고 있다。쿠바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할경우 나미비아사태는 자칫 국제대리전으로 번질수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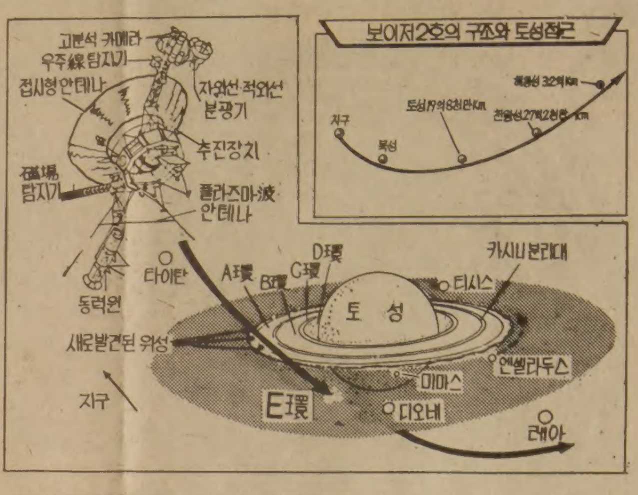
일명 西南아프리카로 통하는 나미비아는 면적은 82만평방km로 한반도의 4배쯤된다。지하자원은 풍부하나 미개발상태이다。인구는 1백여만、대부분 주민이 흑인이고 주민들은 기아와 南阿共의 수탈정책에 시달리고있다。원래는 독일식민지였으나 1915년부터 南阿共의 관할통치를 받아오고 있다。백인소수정권과 인종차별로 악명높은 南阿共은 나미비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철저한 黑白분리정책을 적용、서민수탈정책을 펴왔다。

68년 유엔은 南阿共의 나미비아 강제관할통치가 불법이라 선언하고 11개국으로 조직된 위원회가 신탁통치를거쳐 점진적인 독립을 보장한다는결의를했다。나미비아란 명칭도 이때 유엔이 붙여준 이름이다。하지만 南阿共은 유엔결의를 묵살하고 11개국 위원회의 나미비아 입국마저 봉쇄해 버렸다。70년에는 유엔安保理가、71년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南阿共의 나미비아통치를 불법이라선언했으나 막무가내였다。

76년 앙골라해방인민운동(MPLA)이 오랜내전끝에 좌경정부를 수립하자 SWAPO의 흑인자치운동은 든든한 지원세력을 얻었다。앙골라영토에 본부를 두고 갈수록 좌경색채를 더해가는 SWAPO는 산、누조마、짐바브웨、소련등의 지원을받고있다。레이건행정부가 보타南阿共외상을 공식초청하는등 유화정책을 펴면서 아프리카 현상유지책을 추구하자 나미비아 독립투쟁은 더욱 좌경화되었다。로디지아의 백인소수정권이 몰락하고 짐바브웨에 흑인정권이 서는것도 南阿共의 경각심을 더해주고있다。【李炳圭기자】

電子오르간·호루루기소리의「宇宙交響樂」

보이저2號 土星과 歷史的랑데부순간…우주센터선 歡聲



보도진 7백여명이 몰려

과학자들 "오늘은 挑戰의 날"선언

장터같은 記者室

【패사디나26日=로스앤젤레스支社朴雄기자】보이저2호가 토성에로의 가장 가까운 접근을 시도한 26일 (한국시간)지난1972년부터 9년동안에 걸쳐 보이저계획을담당해온 JPL (제트추진연구소) 안팎은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술렁이고 있었다.

수만명의 텔레비관중이 들끓던 지난번 스페이스·셔틀 를컬럼비아호 귀환때와는달리 이번 보이저2호의 경우는 기자들과 과학자들만의 오붓한 축제인 셈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0분거리 패사디나에 위치한 JPL의 주차장은이미 새벽7시부터 각종 보도진들의 차량 수백대가 ■■히 들어찼다.

프레스센터는 센트럴·엔지니어링건물을 마주하고선 본관강당。

기자회견은 지난 21일 (현지시간)부터 시작,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계속되며 매일 상오10시30분에 공식적으로 한차례 갖고 하오에 질의응답의 회견을 갖는다.

브리스토씨에의하면 이번보이저2호를 취재하기 위해 세계각지에서 모여든 보도진은 TV관계자들까지합해 약 7백명.

한국기자의 모습은 눈에띄지않았고 共同통신,요미우리(讀賣)와 NHK등의 일본기자 5명이 보였다.

『취재신청순으로 98개의 전화달린 책상을 마련해주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 사무실까지 내주었다』고 브리스토씨는 말하지만 수백명이들끓는 기자실은 장터와 다를게없었다.

이번 예측자의 기자회견을 위한 홍보비용만도 50만달러。

보도자료는 대개 한건당 1천부씩、사진은 1건당 4백장씩 마련한다。25일의 기자회견도 상오 10시30분정각에 시작되었다。

강당내부에는 곳곳에 보이저2호가 보내는 사진을 담은 보이저용 TV와 토성의 화려한 컬러사진으로 장식되었고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제작된 보이저2호의 모형이 놓였다.

보이저2호의 『실수없는 임무수행』으로 과학자들은 피곤하지만 모두 흥분된 표정들이었다.

보이저계획에 직접 참여한 1백49명의 과학자중 25일의 주역은 보이저사진 분석팀의 책임자인 브래드퍼드·스미드박사를 비롯한 4명.

「오늘은 도전의 날」이라고 선언한 에드워드·스톤박사의 말 그대로 이날 수백명의 보도진들은 「토성의 소리」를 들었다.

보이저2호가 토성주위 磁場內에 진입할때 생기는 보우·쇼크 (弓波)때문에 일어나는 태양풍과 전파의 소리인 이 「토성의 소리」는 마치 전자오르간의 깊은소리와 호루루기의 높은소리가 번갈아 울리는듯 했으며 짐작을 터는 공명감을느끼게 했다.

『보이저에 카·라디오 안테나를 부착해두었다』고 설명한 프레드·스카프박사가 이 「토성의 소리」를 녹음기에 담아 틀어주자 수백명의 보도진들은신비한 「우주의음악」에 박수를보내기도했다.

셔츠·모자등 불티

◇…일반관중은 별로 없지만 보도진과 JPL직원들상대로도 기념품가게는 성업이다.

보이저와 토성사진이 넣어진 모자가 5달러, T셔츠가 7달러, 포스터가 8달러50센트에 날개돋친듯팔리고「굿바이 새턴」「헬로 새턴」이새겨진 단추가 25센트로 인기를 끌고있다.

◇16만2천km에서 본 디오네위성의 수많은 충돌분화구。

기념품 가게마다 盛業

正確한 航進에 골프비유도

한국人과학자11명

◇…美항공우주국 (NASA) 소유이며 캘리포니아공과대학에 의해 운영되고있는 JPL에는 현재 4천명의 과학자들이 우주탐험을 연구하고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無人우주탐험연구가 JPL의 주요과제이다.

미국의 우주시대가 시작된 1958년1월31일 발사된 미국의 첫 위성인 익스프로러1호가 제작된 곳도 바로 이 JPL이다.

그후 달에 보내진 레인저, 서베이어, 화성과 수성,금성에 보내진 마리너등 계획도 JPL이 맡았으며 1985년 木星에 보내질 갈릴레오도 JPL에서 현재 제작중이다.

보이저 계획에 직접관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JPL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과학자는 모두 11명이다.

스페이스·셔틀관계에 종사하는 임원규박사, 『갈릴레오』계획에 관계하는 원용섭박사(40), 에너지부분의 탁현기박사 (35) 독고원박사 (35) 박영호박사 (35) 김규섭박사 (35)등이 있으며 그밖에 그래픽·아트부문에서 찰즈·숲씨가일하고있다.

"레이건도 큰관심"

◇…에드윈·미즈백악관 고문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있는 샌터바버러목장에서 헬리콥터편으로 JPL을 방문, 브루스·거레이 소장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우주탐험과우주운송 수단개발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있다』고 격려했다.

예정最近接點 통과

◇…미국의 우주탐색선 보이저2호는 지구로부터 무려 15억km 떨어진 토성의 예정된 최근접점을 거의 정확하게 통과했으며 미우주과학자들 스스로도 이를 매우 경탄해하고 있다.

한 우주과학자는 보이저2호의 이와같은 정확성을 뉴욕에서 골프공을쳐서 한번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홀에 집어넣는 것에 비유했다.

中性子彈 유럽배치 현재로는 계획없어

美국무성밝혀

【워싱턴25日AP=聯】미국무성은 25일 이행정부가 현재로서는 중성자탄을 서독을 포함한 유럽국에 배치할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딘·피셔 국무성대변인은 이날 개발중인 중성자탄이 『일정한 조건들』밑에서 서독에 배치될수있을 것이라는 슈미트서독수상의 최근발언에관해 논평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국은 이가공할 무기를 『미영토내에만 비축할것』이라는 앞서의 레이건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이 중성자탄배치를 위해 서독이나 기타 서유럽국들과 협의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갖고있지 않다고 말하고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거론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강조했다.

異見해소에 失敗

사다트—베긴회담

【알렉산드리아26日UPI=聯】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알렉산드리아정상회담에서 일부문제에 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두나라간의 모든 이견을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이스라엘측의 한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베긴·포라드대변인은 25일의 사다트—베긴회담에서 합의를 본점과 합의를 보지 못한점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밝히지 않은채 두나라 지도자가 주로 ①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팔레스타인 자치회담재개문제 ③79년의 평화조약에 의한 이집트—이스라엘관계 정상화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韓半島、中東보다 더危險"

솔라즈美議員, 平壤방문 報告書

【워싱턴25日=聯】美하원의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인 스티븐·솔라즈의원(民)은25일 한반도가 중동보다 더욱 폭발적인 위기가 발생할수있는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현저히완화되지 않는한 駐韓미군철수를 반대하며 또한 한국에 대한 중공 소련의 상응조치가 없는한 미·북괴 관계개선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북괴초청으로 80년7월 平壤을 방문 金日成、金英男등 북괴고위층을 만나고 돌아온 솔라즈의원은 지난 1년간을 비팔에 8월20일자로 美하원 외무위에 제출한 북한방문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록 미·북괴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괴는 중·소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을 계속 반대할것이라는 견해를 중·소지도자들로부터 들은바 있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북괴의 의도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됐다는 구실을 내세워 주한美軍이 한반도에 존재해야할 법적 명분을 제거하기위한 것임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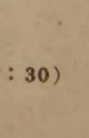
「여성상위시대」로까지 앞질러 가는 세상이지만 남녀차별은 세계 어디서나 눈에 띈다. 완전한 남녀평등은 아직도 이상으로 남아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인 스위스는 최근 와서야 남녀평등권을 헌법에 삽입했다. [illegible] 여성들의 1세기만의 쾌매다. 새헌법 조항은 「남녀의 권리는 평등하다. 법률은 가족·교육·노동분야에서 평등을 보장한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급료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못박았다.

미국의 어느 관광지를 여행했을때 일이다. 初老에든 운전기사가 관광버스를 몰며 안내까지겸했다. 한곳에 차가머물자 운전기사는 「저쪽너편창쪽에 미인이 있소」하며 맞은편에 서있는 또다른 관광버스를 가리켰다. 역시 初老의 여성운전기사가 앉아 있었다. 「저건 내아내요」하면서 그는 껄껄 웃었다.

이렇게 즐거운 맞벌이부부가많은 미국에도 남녀차별은 있다. 오리건주 힐즈보로감옥의 여간수들은 「부당한 남녀차별대우」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자간수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적기 때문이었다. 이 소송을 하급법원에선 기각했지만 지난6월 미국연방최고재판소는 승소판결을 내렸다. 여성운동의 개가라고 여성들은 환호를 올렸다.

미국에서의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현저하다. 노동력의 43%를 차지하면서 대우는 남성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여성들은 남성고유의 직업영역을 파고든다. 서독에선 버스·트럭 운전기사가많고 굴뚝청소를맡은 여성도있다. 2년전 한직업훈련소는 엔쇠공과장철판매원을 양성, 취업시켜 큰성과를 보았다. 루프트한자 비행기의 조종간을잡는 맹렬여성도 나왔다.

旣婚여성公採



우리나라엔 여성경제인구가 38%에 달한다. 당국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여성취업률은 58%나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는일은 취업이 어렵고 급료가 적다는것이다. 취업난이 다소 풀리면서 어느기업에선 기혼여성사무직을 사상처음 공개모집하고 나섰다. 무직남성들이 크게 부러워할 소식이다. 결혼과 함께 직장을 떠나야했던 기혼여성들은 맞벌이시대의 문호가 넓어져 기대가 부풀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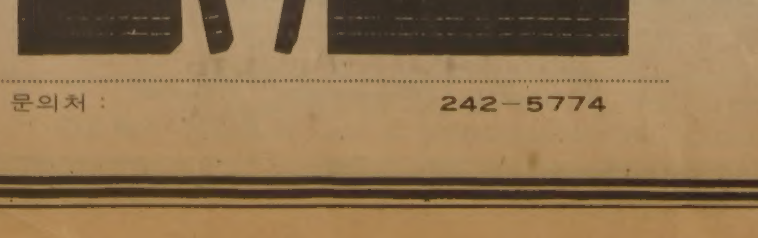
오늘의 小史 <27일>

- ▲세계列強, 파리서不戰조약 조인 (1928)
- ▲클라크유엔사령관, 한국水域방위선 철폐발표 (1953)
- ▲美, 金星로키트마리너 2號 발사 (1962)
- ▲캄보디아, 對월남 斷交를 선언 (1963)
- ▲관세청 발족 (1970)
- ▲셀라시에前이디오피아황제死亡 (1975)
- ▲全斗煥국보위상임위원장, 11代 대통령에 당선 (1980)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242-5774

=치과개원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기장소에서 치과개원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원일시 : 9월1일부터(오전8 : 30~오후5 : 30)
장 소 : 586 EGLINGTON AVE. E.
(Bayview × Eglington)
전 화 : 483-9515(B)

치과의사 최 해 경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千年神秘간직한 古建築의 寶物

亞字房, 안타까운 復元中斷

新羅時代에 축조한 智異山속 禪院
麗順叛亂사건때 불탄채 30年방치

78년에 作業시작…資金달려 中斷상태

=불 한번 때면 45日間 더운기운 남아=

○…智異山 般若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禪堂 亞字房의 復元사업이 중단돼, 東國제일의 禪院으로 꼽히는 文化財가 또 다시 폐허속에 묻혀 버려지고 있다. 亞字房은 경남河東郡花開面凡旺里 般若峰 봉우리의 남녘에 터를 잡고있는 옛 스님들의 禪房。新羅 효공왕(AD897년~911년)때, 담공선사(曇空禪師)가 축조한 亞字房은 온돌이 亞字모양으로 놓여져, 불을 한번때면 온방안이 고르게 따뜻해져 45일간 더운기운이 그대로남아있었다는 신비로운 건물이다。이 房은 우리의 古代건축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國寶的 건물로, 2년전에는 세계건축협회가「世界건축史上 가장신비로운 건조물의 하나」로 인정해서 세계건축사에 기록하기도했다。

◇東國第一의禪院으로 꼽히는 亞字房이 아직도 복원되지 못한채 돌과함석에 덮여 겨우 터만 보존돼있다。윗부분에 보이는 사찰은 七佛寺。

亞字房을 지은 曇空선사는 新羅 효공왕시절부터「은둔 詔諭」로 호칭된만큼 은둔 축조에 신기한 기술을 지녔던 스님이었다。

亞字房은 축조된 후 1천여년간을 내려오며 東國제일의 禪房으로 한국佛教를 상징하는 숱한 명승을 배출해 냈다。朝鮮朝에 이르러서는 한국 불교에서 高僧 大德으로 숭앙되는 西山대사、浮休대사、金潭대사、大隱대사、草衣선사、秋月대사、龍城선사 등이 이 亞字房에 몸을 담아 슬기를 갈아 깨쳤다。

특히 金潭과 大隱 두 선사는 朝鮮왕조의 심한억불정책으로 우리나라 불교의 敎脈이 끊어져 사라져감을 애통하게 여겨 純祖 28년(AD1828년)에 수백일간의 승려과 기도굴에 衆生을 받아 敎脈을 다시 계승해서 智異山 계맥을 創했다。

지방문화재 1백44호로 지정돼 있는 亞字房은 15평크기의 집으로、각방의 구조가 亞字型으로 짜여져 있다。많은 한쪽편으로 50여명 앉게되있어 스님들이 참선하다가 피곤해지면 다리를 아래로 내려놓고 앉아서 쉬게 지어졌다。조그마한 부엌과 마루도 달려있어 밥을지어먹으며 수행할수 있도록 했다。

亞字房에는 세가지 엄한 규칙이 있어 첫째 默言、둘째 長坐不臥、세째 1日1食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세가지 엄격한 규칙중에서도 모든 층류의 말길을 완전히 끊고 묵언하며 絶對孤獨속에 들어가自己를 깨우쳐 지혜의 눈을 뜨라는 첫째 규칙이 가장 중시되었다。이때문에 亞字房에 들어가 사는 스님들은 모두 벙어리가 된다는 뜻으로 벙어리 啞字房에서 啞字房이라고 쓰는 사람들도있었다。이 禪院은 한국불교의 뭇高僧들의 발길이 거쳐 지나간 禪房답게 재미있는 傳說과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게 담겨있다。

亞字房의「마지막道人」으로 꼽히는 秋月스님은 이 방에서 3년간 서서苦行하고 명상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秋月스님은 3년동안 눕거나 앉은일이 거의없이 지내、가장 오랫동안 눕지않고 참선한 스님으로 꼽힌다。

亞字房은 麗順반란사건때 포격을 받고 불타 잿더미로 변해、1천여년을 간직해온 神聖한 역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이 七佛寺는 지금으로부터 1천8백80년전 駕洛國 婆娑王 22년(AD1백1년)에 창건된 古刹로、가락국의 始祖 金首露王의 일곱王子가 이곳에서 成道해서 七佛寺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사찰이다。

현재 七佛寺는 禪院5칸이 복원돼 있다。亞字房은 한층 잿더미로 변한 후 덤불과 잡초속에 파묻혀 28년간이나 버려져있다가 지난78년에 七佛寺 住持 通光스님의 發願과 함께 信徒들이 복원을 시도하기 시작했다。通光스님에 의하면、凡旺里 마을에는 亞字房을 직접 보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있고、살아있는 큰 스님가운데 亞字房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 거의 예전모습대로 다시 세울수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禪堂의 복원에 쓰이는 예산 5천~6천여만원의 시주를 모으는데 한계점에 이르러 복원사업을 중지한 상태로 있다。

亞字房은 현재 수십개의 온돌과 주춧돌이 자기 자리를 잃고 흩어져 있으며、복원 사업을 처음시도한 78년에 돌을 쌓아올리고 함석으로 덮어서 보존한대로 남아있다。七佛寺 측에서는『내년 82년도의 星曆에는 狗狼星(辰戌丑未)이 있어 사찰을 신축하지 못하는 해로 금하고 있기때문에 올해 안으로 주춧돌을 놓고 上樑까지 마쳐두어야만 복원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佛家에서는 구랑성(狗狼星)이 끼어 있는 해에 사찰을 짓기 시작하면 불이 난다든가 재앙이 반드시 따른다고 전해져내려와 구랑성의 해에는 사찰을 신축하지 않는다。

亞字房 복원은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의 커다란 관심사로 꼽혀와、문화재전문위원 金周泰씨등이 그동안 네차례나 현지답사를 해왔다。黃壽永교수(東國大대학원장·佛敎美術史)는『亞字房은 위대한 선사들을 많이 배출한 우리나라제일의 禪堂으로、또 세계건축사상 不可思議한 구조기술을 지닌 신비스러운 건축물로서 화제되는 聖地』라고 말하고『그같은 聖地가 30년이 지나도록 폐허로 묻혀있는 것은 탄식할만한 일』이라고 평한다。그리고『亞字房은 꼭 다시 세워져야 하며 僧團측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복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설명한다。

【智異山=馬桂淸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尹致暎〉 윤치영 ㉛

歐美委員部

李박사가 主導下 光復위한 在美本部
5年후부터 參與 鄭翰景·林炳稷등과 활약

위싱턴유학시절을 얘기할때 歐美委員部를 빼놓을수없다。歐美委員部는 나라잃은 대한민국의 在美본부였다。

3·1운동前後해서 미국각지에는 同志會 國民會를 비롯한 독립운동을 목표로한 교포단체들이 무수히 있었지만 가장 우뚝한것은 뭐니뭐니해도 李承晩박사가 이끄는 歐美委員部였다。

歐美위원부는 上海에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歐美대표기관이자 亡命정부의 在美公館인것이다。때문에 많은 교포단체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독립운동을 벌인반면 이委員部는 사실상 國權회복을 위한 公的활동을 전개했기때문에 미국사람들도 亡命정부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해주었던 것이다。

지금도 가난하고 외로운 가운데도 오직 나라를 찾아야겠다는 불타는 의지하나로 委員部를 중심으로 東奔西走하던 60여년전의 李박사와 그리고 동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일찌기 프린스턴大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李박사는 독립을 위해서는 총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外交、즉 우리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 미국등 우방각국의 도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훗날 建國후 風雲造化의 外交솜씨로 정부수립─6·25동란─戰後복구를 해낸 李박사의 外交信奉論은 이때부터도 확고했던 것이다。

歐美委員部이전 미국 교포사회에는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최초의 모임으로 全韓人會議가 있었다。즉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日帝가 무자비하게 이를 탄압했다는 소식이 外信으로 미국에 보도되자 우리 교포와 유학생들은 분노와 흥분을 참을 길이 없었다。

특히나 살인 放火등 天人共怒할 日警들의 蠻行소식은 교포들의 피를끓게했다。

교포와 유학생들은 엄청난 뉴스를듣고 본국동포들이 목숨을걸고 독립을 외치고있는 이상황에 우리들도 가만히 있을수없다며 이곳저곳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무렵 李박사는 甲申政變이후亡命해온 徐載弼박사와 의논、독립운동방향을 협의끝에 全韓人會議를 소집하기로하고 미국각지의 교포단체와유학생들에게 편지를보냈다。

드디어 1919년9월19일부터 1주일간 필라델피아市에서 역사적인 全韓人會議가 개최됐다。토머스·스미드시장、조지·노리스(네브래스카州)、S·D·스펜시(미주리州)두 상원의원도참석한 이대회는 歐美列强들이 日帝의 不法强占한 한국독립에 협력해줄것을 요청하는決議文을 채택、이를美議會와 윌슨대통령에 보냈다。

대회가 끝나는날 교포들은 美독립의 聖地인 유서깊은 필라델피아市를 행진했으며 李박사는 독립會館안에 있는「자유의 鐘」을 치며 독립의 결의를 다지기도했다。

이에앞서 上海에 망명한 愛國인사들은 1919년4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李박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했다。(처음엔 국무총리)

◇李承晩박사와함께 歐美委員部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오른쪽부터 徐載弼 鄭翰景(左上) 林炳稷(左下)

독립을 위해서는 어떻게하든지 列强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李박사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기위해 歐美委員部를설립했다。臨政의 대통령이면서 스스로 同위원부위원장이된 李박사는 우선 위원부가 臨政의 公館임을 인정받는일을 첫활동목표로 삼았다。

임시사무실에 위원부간판을 내건 다음날부터 李박사는 당시학생이던 林炳稷(前외무장관)을 비서로 삼아 활동에 나섰지만 미국무성의 차가운반응으로 벽에 부닥쳤다。다시 프린스턴大시절의 恩師였던 우드로·윌슨 대통령에게 請願했지만 윌슨은 日本을의식、거부하는것이 아닌가。소위 1차대전후 民族自決主義를 기초로 세계평화를 외치던 윌슨이 바로 나라를 强占한 日帝의 눈치를 살피는것을 보고 李박사는 환멸을 느꼈던것이다。그러나 李박사는 낙담하지않고 미국각계인사들의 도움을 얻어 줄기차게 한국독립을 역설하는한편 각지를 순회하면서 교포들에게 나라를 잊지말자며 강연을 하기도했다。

이무렵 李박사를반대하는 在美및 臨政의 일부인사들은 소위 대통령이 上海에서 亡命정부를 지휘하지않고있으며 또 閣議와 議政院(국회)의 승인도 없이 멋대로 歐美위원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본인은 外交를 모르는 무식한小人輩들의견해라며일축했다。

당시 委員部를 도왔던 미국인으로는 호머·B·헐버트·프랭크·스코필드박사、유명한 굴·스테거변호사、INS통신(현UPI前身)의 제롬·윌리엄즈기자등이 두드러졌다。특히 舊韓末에 우리나라와인연이있는 헐버트박사(나중 다시얘기하겠음)와 선교사인 스코필드박사는 日帝의 만행을 담은 사진을 각기관과 각지에보내 對日규탄여론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했다。

나는 李박사의 지시에따라 歐美위원부가 창설된지 5、6년후부터 참여했다。이때 함께 일하던 분으로는 鄭翰景(前駐日代表부대사)林炳稷 南宮炫(前뉴욕총영사)申衡浩 明東씨등이 생각난다。

한국 國寶級도…보람만끽
단골 6백명…모두 愛好家

開業8년에 4억5천만원어치 진열

「梨花畵廊」경영하는 李和子씨

『日全域 누비며 美術品 삽니다』

【名古屋總局】나고야(名古屋)시내 한복판、사가에도오리(栄通)의 고층빌딩2층에 자리한「梨花畵廊」은 전통의 한국멋이 물씬 풍긴다。

梨花는 일본에 하나밖에없는 한국의 고미술 거래상점이다。쉽게말하면 골동품가게。10평안팎의 가게안엔 이조백자 고려청자등 자기류、이조민화(民畵) 병풍등 회화류、신라시대의 항아리등 갖진 골동품3백여점이 걸려 진열되어있다。

『한국의 탁월한 전통문화를 일본사람들에게 자랑할수있어 좋고、돈도 벌수 있어 가게를 경영 하는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조백자처럼 수수한 인상을 풍기는 梨花화랑대표 李和子씨의 말이다。

李씨가 가게를 시작한것은 8년전。이젠 진열된 미술품의 값만도 1억5천만엔(4억5천만원)을 넘을만큼 크게 성장했다。李씨는 보통 골동상과는 다른 독특한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선 미술품의 공급원을 일본에 한하고있다。일본에 흩어져있는 고미술품을 자신이 직접 뛰어다니며 감정해 사들인다。李씨가 미술품의 원류인 한국을 공급원으로 하지않는것은 한국의것이 하나라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자기나름의 신념에서다。

李씨에의하면 아직도 일본에는 진가를 알수없는 값진 한국의 고미술품이 상당히 널려있다는것。때로는 값싸게 사들인 물건이 국보급에 해당할만큼 귀중한것도 있었다。

고객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李씨를 상대하는 손님은 6백여명。일본전국 각지에있는 고미술품 애호가들이다。전부가 꽃이은 고정손님으로 고미술품에대한 안목이 높은 사람들。값싼 것으로 거래하는 손님은 한명도 없다。

李씨는 고미술품에대해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으나 이제는 한국의 고미술품에대해서는 일류전문가가됐다。한눈으로 보고도 어느시대 어느유의 작품인것을 알수있게 됐다는것이다。

李씨는『마음속으로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게을리 하지않았기 때문인것같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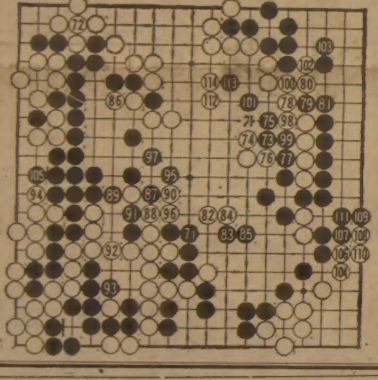
그가 고미술에 집착하고있는것은 화려하지않고 고귀하며 청아해 짙은 맛을 풍기는 고려청자의 매력에 이끌려서다。

◇『조상들의 예(藝)가 살아 숨쉬는 고미술품을 보면 저절로 가슴이 뛴다』고 말하는 梨花 畵廊대표 李和子씨。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白(6段) 徐能旭
黑(4段) 姜勳

第1局 第8譜 171~214 (각5시간 덤5집반)



좌상귀의 패싸움은 결국 黑이 71로 패를 연거푸 두고 白72로 잇게하는데서 해소되었지만 黑은 73의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있었다。총말해서 黑의승세는 변함이 없었던것이다。여기에서부터 徐6단의추격과 姜4단의 반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黑73에 대하여 白74가 호착인가 하면 白78 黑79도 그만 못지않은 호착。이하 黑81까지 필연이었다。白은 이대로 진행되었다가는 여전히 승산이 없다。白82이하 黑85를 거쳐 드디어 좌측黑대마에 白86으로 공격을 취했다。하지만 뒤늦은 감이 없다。때가 너무도 늦었다。黑에게는 87·89의 수단이 준비되어있어 이에 이르러 徐6단은 점점 투지가

白、追擊無爲…憤敗

소멸되어가는 모양이다。白94가 그런 뜻이 다분히 내포된수인가 싶어보였다。『白94는 어찌되었거나 한번黑97자리를 들여다보고 다음수를 찾았어야 했다』고 국후의견이 매우 신랄했던것이다。그것은 97자리를 黑이두게 되어서는 설상가상、黑만 모양을 갖추게 하고 말았다。徐6단은 白98을 두어놓더니 고개를 설레설레。만사가 뜻대로 안된다는 표시일것이다。이 白98에 관해서는『98로「가」에 막는것과는 이해가 상반한다』는 趙8단의 해설이거니와 이쯤되어서는 白114이후의 끝내기를 기다릴것도없이 승부는결정적。114다음 50여수를 더두었으나결국 黑은 盤面으로 12집、덤을제하고 6집반을 이겼다。姜4단으로는 행운의 역전승이었다。【一凡】

文豪의 名言

志賀直哉 〈1883~1971〉

일본의 小說家。學習院을 거쳐 東大英文科중퇴。어릴때부터 미술과 문학을 좋아했다。武者小路實篤·里見弴등과 雜誌 시라까바(白樺)창간(1910)。많은작품발표。代表作「暗夜行路」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자식들에 이렇게 가르치려한다。「자기를 熱愛하며 스스로를 소중히 하라」고。

나는 내 과거를 돌이켜、자기를 熱愛했고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며、스스로를 존경해왔다고 자신한다。그러나 동시에 끝없는 自己嫌惡에도 빠졌다。

나처럼 형편없는자는 다시 없으리라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끝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나를 소중한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 × ×

수필「靑臾帖」으로부터의 인용。志賀直哉(시가·나오야)는 그대표작「暗夜行路」(1921~37)를 완성하는데 17년、그 전의 構想이 먼「時任謙作」으로부터 헤아리면 27년을 소비했다。

그것은 그의 건강과 다소 부지런하지못한 성질에서 오는것이기도하거니와、그보다는 오히려 모든일을 적당히 넘겨버리는것을 싫어하는 그의 성격탓이라 보여지며、또한 인용의 말에서도 알수있듯、그가「자기를 熱愛하며 소중히」해온데 원인이 있다하겠다。

芥川龍之介는 생전에 志賀를「人生을 淸潔하게 사는作家」라고 평했지만 그청결함은 각 작품에서도 충분히 느낄수가있어、그의 작품의 하나의 특징으로까지 돼버렸다。

「暗夜行路」에 있어서도 출생에서부터오는 일종의 運命悲劇(부친의 洋行중 조부와 모친사이에 태어남)을 묘사하면서 主人公은 그 운명을 헤쳐 나가려하며、끝없이 生活의 光明을찾으려 노력하고있어 거기 志賀다운 道德的 청결함과 자기를 熱愛하며 소중히 하는 정신이 나타나있음을 볼수있다。

이 작품은 日本 近代文學중의 한 秀作이며 그 원숙한 경지는 日本文壇에 큰영향을 끼쳤다。

그의 작품은 소설이 대부분으로 自意識과 反抗意識이 강했으며 詩와 現實을 하나로 어우른듯한 느낌을 준다。

초기엔 자연주의 경향을 보였으나 1920년대부터는 東洋의 風格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의 문장의 뛰어남은 당시 일본문단의 일치된 견해였고 한때「소설의 神」이라고까지 불렸다。

작품으론 다음과같은것이 알려져있다。「和解」「大津順吉」「청개구리」「잿빛달」「면도칼」「혼탁한 머리」「范의 犯罪」「網走까지」등。

流星의 賦

<168>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⑱

『정여립 같은 자를 그냥 두었다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단호히 처단하라』고 하석이 나섰다。하석은 정여립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자 울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홍계남이 말했다。

『그 일로 두고 우리 여럿이 떠들어 소동을 피울 필요 없다。나 혼자서 감당하겠다』

이문길과 이덕남이 같이 서울자고 했으나 여럿이 움직이면 자연 사람들눈을 끌게하니 단독행동이 좋을것이라고 하여 그일은 홍계남에게 맡기기로했다。모두들 계남의 무술과 완력을 믿고있었기 때문이었다。

늦은 여름의 어느날 홍계남은 해가질무렵 정여립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고있었다。여립의 집은 남산의 동편、남소영(南小營) 가까운 어청교(於靑橋) 근처에 있었다。

해가 지고 초승달이 솟았을 때 홍계남은 어청교를 건너오는 정여립을 보았다。한데 다리 위엔 두세사람이 저녁바람을 쐬고 있는 터라 거기서 일을 시작할 순 없었다。여립이 다리를 건너 개울을 따라 올라가는데 인가가 뚝 끊긴 지점에 이르렀을 때 계남이

『여보 형씨』

하고 여립을 불러세웠다。

여립이 힐끔 돌아보고 어스름 달 빛 속으로 계남의 그림자를 확인하자 불쾌한 투로

『날 불렀나?』

했다。

『그렇다』

계남이 썩 다가섰다。

『아직 젊은 놈이 버릇 없인』

여립은 계남을 노려봤다。여립도 장대한 체구에 상당한 완력을 가지고 있는 터라 일대일(一對一)로 싸워 패를 보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개 같은 놈이 사람의 버릇을 찾으면 뭣해』

계남이 먼저 여립의 멱살을 잡으며 호통을 쳤다。이미 말한 바와 같이 여립도 완력엔 자신이 없는바도 아닌데 계남에게 멱살을 잡히고 보니 양팔을 쓸 수가 없어 허위적거렸다。

(이 놈은 필시 장사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지 여립이

『멱살을 놓아라。멱살을 놓고도 얘기 할 수 있을것이 아니냐』

고 사정을 했다。

『얘기를 해? 내가 개 같은 놈 상대로 얘기하려 온 줄 알어? 천벌을 주려고 왔다』

여립의 멱살을 끌고 정자나무 옆으로 가서 그 머리를 나무 둥치에 쿵소리가 나게 밀어붙였다。

『아이쿠』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여립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부서진 갓이 저만큼 뒹굴었다。

계남이 다시 여립을 끌어세워 정자나무 둥치에 밀어붙이려고 할때 여립이 기어드는 소리로 애원했다。

『살려줍쇼。무슨 까닭으로 이러는지 알기나 합시다』

『네놈은 네가 지은 죄도 모르겠나? 넌 이놈아』

그리고 계남이 말을 이으려고 했을 때

『젊은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점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열린 제6회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다음과 같이 거행되오니 당일 대회 참여자는 물론 많은 사진애호가 교민들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감상하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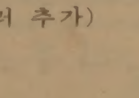
시상자 명단은 이날 현장서 발표됩니다.

때 : 1981년9월19일(토) 하오7시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ONTO ONT)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드림

FRANCHISE베이커리



총 투자액 95,000달러
DOWN PAYMENT 40,000달러
융자액 55,000달러
※자신이 없는분에 대해서는 년봉 18,000달러 개런티(한사람일 경우)
(Wife가 같이 일할 경우 8,600달러 추가)
(부부 총계 26,600달러)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北一、釜山商 꺾고3位차지

金賢澤등 11安打 퍼부어

釜商 1死만루등 4찬스놓쳐

4-0

鳳凰大旗 고교野球

天安北一高가 제11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의 자주대기(3위)를 차지했다。 창단3년만에 영광의 초록 봉황대기를 손에넣었던 北一高는 2연패의 문턱서 물러섰으나 26일 결승전에 앞서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3、4위 결정전에서 7번金賢澤의 3타수 2안타등 11안타로 釜山商高李弦澤을 맹공、4-0으로 낙승을 거두었다。 1m90의 장신 金賢澤은 이번 대회에서 14타수 8안타、7타점、타율 5할7푼1리의 놀라운 파워를 과시、대형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釜山商高는 1회초 1사만루를 비롯한 네차례의 찬스를 모두병살로 잃어 완패했다。

◇재빨리 2盜성공 北一高와 釜山商의 3、4위전。1회말 北一의 선두 曺良根이 중전안타로 나가 잽싸게 2루를 훔치고있다。

北一高·釜山商

釜山商은 기량에서도 열세였지만 지독한 불운앞에 별수없이 무릎을 꿇었다。1회초1사후 2번 宋沅俉가 우전첫안타를때리고 3번 丁海德、4번 李弦澤이 미처 컨트롤을 잡지못한 北一선발 河仁秀로부터 연속포볼을 빼앗아 만루의 황금찬스를 맞았다。

그러나 타선의 중심인 5번林相根의 타구가 3루수에게 잡혀 홈으로 달리던 3루주자 宋沅俉가 포스 아웃되고 타자주자 林相根역시 3루수、포수1루수로 연결되는 더블·플레이로 아웃、선제점의 기회를 놓쳤다。

첫회의 고비를 병살로 선방한 北一은 1회말 선두 1번曺良根、2번 廉相和、3번金相國의 연속 3안타와 4번 李康昊의 스퀴즈번트、5번 尹洪植의 좌희비로 釜山商에이스 李弦澤을 공략、선제2점을 올렸다。

釜山商은 3회초 선두 1번 裵秀京이 중월 2루타로 나가 2번 宋沅俉의 보내기 번트로 北一수비진이 주춤거리는사이 홈까지 뛰어들다 투수、1루수 포수로 연결되는 北一의 기민한 더블플레이에 또한번 득점기회를 놓쳤다。

釜山商의 불운은 끝까지계속되어 4회초에는 6번鄭翔立의 3루앞 병살타、9회초에는 1사후 4번 李弦澤、5번 林相根의 연속안타로만든 마지막 찬스기회를 鄭翔立의 두번째 병살로 놓쳐 한번도 홈을 밟지못했다。

5회말 北一의 선두 2번廉相和의 안타와 2、3루 연속 스틸、포볼로 맞은 위기를 병살로 선방해낸 釜山商은 6회말 손쉬운 파울플라이를 포수 丁海德이 놓치는 실책으로 北一에 또 한점을 헌납했다。

北一은 6회말 선두 6번崔在明、7번金賢澤、8번安聖洙의 연속3안타와 적실로 무사 만루의찬스를 만들었다가 1루주자가 견제구에걸리고 金賢澤의 첫 타구가 포수파울플라이로 떠올라 몰살의 위기에 빠졌으나 釜商포수의 落球로 회생、내야땅볼로 1점을 추가했으며 8회말에도 2안타 1희타로 1점을 추가했다。

北一은 釜山商포수의 약점을 이용、5개의 도루를 기록했다。

◇3、4위전

부산상고	0	0	0	0	0	0	0	0	0	—0
북일고	2	0	0	0	0	1	0	1	×	—4

▲부산투수=李弦澤 포수=丁海德 ▲북일투수=河仁秀 安聖洙(6회) 포수=金相國

運動場 빈병 판돈 5萬원 경비 경관들 직업校 전달

서울中部 경찰서(서장 申東熙) 金正彩경비계장은 26일 하오1시 서울운동장 야구장입구에서 봉황대기 기간동안 관중들로부터 보관한 빈병 5천6백개를판 대금 5만여원을 中部 봉우청소년 직업학교 宋영순 교장에게 전달했다。

宋교장은 이돈으로 직업 학교 재학생 52명에게 나누어줄 학용품을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東國大생、中部서 직원들로 교사진이 구성된 이 학교에는 구두닦이、껌장사등 15~17세의 남녀직업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중 6명은 지난7월 고입 검정고시에、8명은 중입 검정고시에 각각 합격하기도 했다는것。

경찰이 빈병들을 팔아 직업학교에 전달하기는 이번 봉황대기때가 처음이다。

◇전국의 49팀이참가한 봉황대기대회는 19일간의 열전끝에 26일 폐막됐다。결승전에 앞서 벌어진天安北一高와釜山商간의 3, 4위전에서팬들이 열광적인응원을 펼치고있다。

鳳관람석 늦여름 밤에 喊聲이 진동 「鳳凰의 決戰場」답게 조명등 찬란

연19일간 전국의 야구팬들을 열광케했던 봉황구장。 초록봉황대기의 주인공을 가리는 26일의 봉황스탠드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天安北一高와 釜山商간의 3、4위전이 막바지에 접어든 하오5시께 스탠드는 초만원、외야석도 人波의 물결을 이루었다。

오랜만에 야간경기로 빅게임을 구경하게된 팬들도 즐거운 표정。

1루 스탠드에 자리잡은 金亨植씨(38·회사원)는 『전력사정이 크게 악화되지않는다면 각종대회 결승전은 야간에 치르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결승전과 3、4위전에 나선 선수들도 우천으로 만하루를 쉬어 생동감이넘쳐 있었고 플레이도 매끄러웠다。

세계軟式정구폐막

金憲洙·朴範淳組 준우승차지 한국팀 銀4개로不振

【힐로(하와이)=聯】한국남녀대표선수단은 26일 이곳 시빅 코트에서 폐막된 제4회 세계연식정구선수권대회에서 끝내 단1개의 金메달도 획득지 못하고 銀메달 3개에 그쳤다。

우승이 기대되던 남자개인전 결승에서 金憲洙·朴範淳조는 日本의 기구찌·요꼬조에 2—5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이에앞서 준결승전에서金·朴조는 이노우라·오끼조를 5—4로 이겨 결승에 올랐었다。

한편 여자개인전 결승에서 日本의 요시도메·마쓰모도조는 히께가이·이또조를 5—4로 눌러 우승、日本은 남녀단체및 개인전 패권을 휩쓸었다。

韓國은 여태대회사상 가장 저조한 남녀단체및 남자개인전등에서 3개의 銀메달을 차지했다。

韓國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이처럼 부진한 것은 타이어탄의 케미컬 코트에 익숙치 못했고 기술적인면에서 발리와 스매싱이 뒤떨어졌기때문인것으로 보인다。

◇최종일전적

▲남자개인결승 金憲洙·朴範淳(韓國) 2—5 기구찌·요꼬에(日本)

▲여자개인결승 요시도메·마쓰모도(日本) 5—4 히께가이·이또(日本)

▲남자개인준결승 金憲洙·朴範淳(韓國) 5—4 이노우라·오끼(日本)

印 IOC委員 쿠마르氏 來韓

印度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아시니·쿠마르씨가 曺相鎬大韓체육회장 초청으로 26일저녁 KAL편으로 내한했다。

서울의 88년 올림픽유치와 관련、내한한 쿠마르씨는 3일동안 국내에 머무르면서 蠶室종합운동장、泰陵국제사격장등 국내스포츠시설을 돌아본뒤 30일하오 출국할 예정이다。

치 조인서에 참석한다。

世界사이클 選手權 프라하서 28일開幕

【프라하24日AP=聯】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가 東歐圈을 비롯、한국과 美國·中共등 세계27개국이 참가한가운데 오는28일 프라하에서 1백㎞단체추발경기를 필두로 시작된다。

첫날 1백㎞ 단체추발경기는 세계선수권을 보유한 東獨이나 모스크바올림픽대회 우승국인 蘇聯이 패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는 이번대회를위해 50㎞의 롤라우江제방에 주행코스를 마련하고 있다。

테니스常備軍 평가 金春浩 李우룡先頭

明知大의 金春浩와 李우룡은 남자테니스국가상비군 평가전 6일째경기에서 金泰洙(울산공대)·周昌男(대우중공업)을 각각 3—0으로 완파、4승1패로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다。

26일 장충코트에서 열린 6일째 경기에서 宋東煥(울산공대)은 선두그룹의 田昌大(명지대)를 3—0으로 제압、2승3패를 마크했다。

이날 李우룡(명지대)은 1시간30분만에 周昌男을 3—0으로 제압했으며、金春浩(명지대)는 金泰洙(울산공대)를 맹공、6—4、6—4、6—1로 이겼다。

이번 평가전은 27일 막을 내린다。

◇제6일전적

金春浩 3(6—1 6—4 6—4)0 金泰洙 (4승1패)(1승5패)

이우룡 3(6—2 6—2 6—1)0 周昌男 (4승1패)(1승4패)

宋東煥 3(6—1 7—6 6—4)0 田昌大 (2승3패)(3승2패)

實業야구 後期리그 9월1일부터 續行

실업야구 후기1차리그 잔여23게임이 오는9월1일 부터 서울운동장에서속행된다。

9월9일까지 계속되는 경기도중 2·3·4일 사흘간은 日本고교선발팀 초청 韓日고교야구 경기전도 아울러 열린다。

후기 1차리그에서는 3승1패의 韓一銀行、3승1무1패의 經理團등이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다。

浦鐵工야구팀 在日동포 對戰서 비겨

【浦項=聯】浦鐵工은 25일浦鐵구장서 열린 在日同胞고교야구선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3—3으로 비겼다。

◇전적

在日同胞	0	2	0	1	0	0	0	0	0	—3
浦鐵工	0	0	0	0	1	1	0	1	0	—3

培材·養正 럭비戰 28일 3게임對戰

제28회 培材·養正 럭비 정기전이 오는28일 孝昌구장에서 中·高·OB전등 3게임으로 거행된다。

작년까지의 전적은 27전13승6무8패의 養正이 8승6무13패의 培材를 앞서고있다。

메르데카盃 축구 30일 12개팀出戰

【콸라룸푸르25日UPI=聯】아시아지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자랑하는 메르데카배 국제축구대회가 한국등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30일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된다。

이번대회는 9월20일까지 계속되는데 말레이지아축구협회는 특히 대회창설 25주년을맞아 우승팀에 4만달러의 상금을 걸어놓았다。

이번대회의 우승후보로는 브라질 한국 말레이지아 이라크등이 꼽히고있는데 특히 사웅파울루 1부리그 선발팀인 브라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雙龍旗남녀高校농구

光州高·東洲女商도合流

決選토너進出14強확정

남고부
松都高
光新商
龍山高
光州高
景福高
全北師附
여고부
成德女商
東洲女商
善一女高
清州女商
崇義女高
全北體高
水原女高
松源女商

제17회 쌍룡기 쟁탈 전국남녀고교 대회는 26일로 예선리그를 모두 완료、남고부서 松都高、光新商高、龍山高、光州高、景福高、全北師大附高등6개팀、여고부서成德女商、東洲女商、善一女商、清州女商、崇義女商、全北體高、水原女高、松原女商등 8개팀이 결승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이날 여고부서 東洲女商은 德成女商을 76—56으로 대파、成德女商에이어 A조 2위로 결선에 나갔다。

또한 남고부서 光州高는 金京洙의 활약으로 金裕宅에게만 의존하는 明知高를 73—64로 누르고 2승1패로 龍山高와 동률을 기록했으나 승자우위원칙에의해 光州高가 1위、龍山高가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제5일 예선리그 최종일

▲남고B조

광주고 73(36—28 37—36)64 명지고

▲동순위=①용산2승1패 ②광주2승1패 ③명지1승2패(이상 승자승) ④휘문 1승2패

▲동C조

경복고 79(35—43 44—32)75 양정고

▲동순위=①경복2승 ②전북사대부1승1패 ③양정 2패

▲여고A조

동주여상 76(34—27 42—29)56 덕성여고

▲동순위=①성덕3승 ②동주2승1패 ③덕성1승2패 ④효성3패

▲동B조

선일여고 74(34—29 40—29)58 진주여고

▲동순위=①선일2승 ②청주1승1패 ③삼현2패

韓·日고교陸上 男8·女6종목 優勝 한국

韓日고교교환 육상경기대회이틀째 대결이 26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졌는데 한국은 남고부 15개종목가운데 8개종목서 우승했고 여고부12개종목은 6개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계주와 필드부문서、日本은 단거리와 중거리서 우세를 보였다。

이날 남고8백m서 李相燮(한국)은 2분0초3으로 우승했고 여고4백m서 李亨美(한국)는 58초9로 우승했다。

◇기록 (각종목 1위)

▲남고 1백m=田川昇一(일본) 10초8 ▲동2백m=村田勇(일본) 22초5 ▲동4백m=村田勇(일본) 50초5 ▲동8백m=李相燮(한국) 2분0초3 ▲동1천5백m=李鎭根(한국) 4분07초F ▲동1백10m허들=朴貞信(한국) 14초5 ▲동5천m=趙鎭生(한국) 15분20초9 ▲동4백m계주=①한국 42초8 ▲동주폭도=①趙永浩(한국) 6m94 ▲동삼단도=朴永峻(한국) 14m38 ▲동투포환=朴鍾述(한국) 14m54 ▲동주고도=瀨間(일본) 1m90 ▲동투원반=閔世勳(한국) 54m14 ▲동투창=高橋(일본) 54m83 ▲동해머=新井(일본) 56m70

▲여고1백m=①宮原(일본) 12초5 ▲동2백m=①宮原(일본) 25초4 ▲동4백m=李亨美(한국) 58초9 ▲동8백m=金孝順 2분14초8 ▲동1천5백m=李順姬(한국) 4분44초7 ▲동1백m허들=佐藤(일본) 15초1 ▲동1천6백m계주=한국 3분57초2 ▲동주고도=高橋 1m65 ▲동주폭도=後藤(일본) 5m61 ▲동투포환=禹賢善(한국) 12m73 ▲동투원반=裵仁淑(한국) 37m48 ▲동투창=原(일본) 40m38

韓日고교배드민턴 全州農林高校완승

제1회韓日고교배드민턴친선경기를위해 日本에 원정한 全州農林高와 光州東新女高는 25일 야마가따(山形)縣시립체육관에서 열린 야마가따선발팀과의 경기에서 각각 6—0으로 완승했다고 26일 배드민턴협회에 알려왔다。 全州農林은 朴桂奉·朴香圭가 주전으로 활약、야마가따팀과의 3단식3복식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韓國、星港에 져 亞洲여자하키

【東京25日=聯】日本교오또(京都)에서 열리고있는 제1회아시아여자하키선수권대회에 출전중인 한국팀은 대회이틀째인 25일 싱가포르에 1—0으로 패배、홍콩과 함께 2패를 기록했다。

◇이틀째전적

한국 0—1 싱가포르

日本 6—0 홍콩

印度 3—0 말레이지아

◇공개스파링을 마친후 도전자 金泰式과 챔피언아벨라가 포즈를 취하고있다。

WBC 플라이級 挑戰앞서 各各 공개스파링

30일밤 장충체육관서 벌어지는 프로복싱 WBC플라이급 타이틀매치를 앞두고 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멕시코)와 도전자 金泰式은 26일 하오 元振체육관서 공개스파링을 펼쳤다。

챔피언 아벨라는 로돌포·갈반(멕시코 플라이급선수)과의 스파링서 빠른 발놀림과 예리한 連打테크닉을 선보였다。

도전자 金泰式은 元振체육관 소속의 신진 선수 李백만과 가볍게 3라운드 스파링을 마친후 『지금의 컨디션은 좋은 편이다。 경기 당일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나가면 좋은 경기를 보여 줄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두 선수는 28일 하오 1시 世宗호텔서 열리는 타이틀매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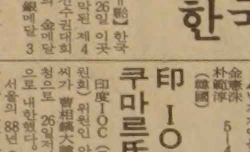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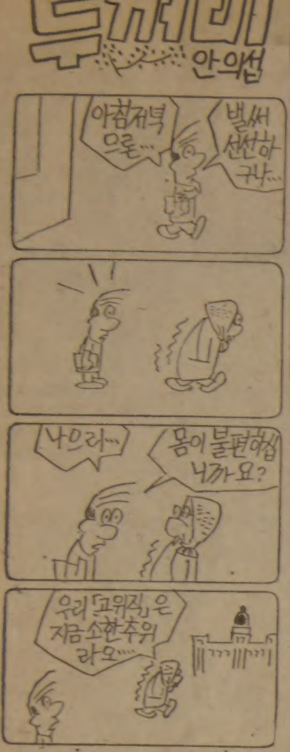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인 빛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휴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두꺼비 안의섭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診療費 허위過多징수땐 醫保組合에 강제회수권

保社部、시비잇달아 法改正案마련

國會議員도 加入길터

터없이 비싼 진료비를 높고 의료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사이에 끊임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어왔던 현행의료보험법상의 헛점이 보완된다。

현행의료보험법상에는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허위로꾸미거나 터무니없이 비싸게 청구해도 보험가입자들은 법적 규제조항이없어 민법으로 반환소송을 낼수밖에 없었던 불편을 겪어왔다。

보사부는 26일 의료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앞으로 허위 또는 과다청구등 부당한 진료비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해당의료보험조합이 이를 강제회수할수있는 규제조항을 신설한 의료보험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또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기능을강화해 재정상태가약한 조합에대해 위험을 보장하는 재보험기능을 갖추도록하고▲고액진료비를 보조할수 있도록하며▲피보험자가 자격상실후 다시 자격을 취득할때는 취득당해월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번 법개정을통해 국회의원도 의료보험의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했다。

"月給6만원이하 低賃근로자 醫保料 사용자부담"

勞總서 건의

한국노총(위원장鄭東株)은 26일 월급여6만8천원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의료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부담하거나 면제해줄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노총은 또 월급여액 6만8천~14만2천원사이의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3분의2를 부담하도록하는등 근로자의 의료보험료부담을 낮춰줄것도 요구했다。

노총은 현재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독신으로 피부양가족이 없어 보험카드를 사용하는 횟수가 중간소득계층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보험료부담에 비해 혜택을 덜 받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이같이 건의했다。

노총은 또 현재의 조합주의를지양하고1종조합전체를 하나로통합할것을요구했다。

노총은 또 현재 1종조합내의 잉여금 7백65억여원을 활용、의료및 복지시설의 설립운영、보건교육、홍보·조사연구등을강화할것을촉구 했다。노총은또현행제도하에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전국항만및 철도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할것도 건의했다。

亂立한 음식百貨店 무지한 零細商 우롱

詐欺계약 / 날림內裝 / 坪數조작

30여곳入住商人訴訟사태

「契約自由」빙자한 轉貸主 농간

시설비 6천만원받고 2천만원 下請 / "권리주장 못한다" 상식밖의 契約書

올들어 첫선을 보였던「음식백화점」은 누가 보아도 기발한상술이다。새음식이나 새요리를 개발한것도 아닌데 갖가지음식을한 빌딩안에서 쉽게 골라 먹을수 있게한 간단한 아이디어가 히트를 쳤다。고객들의 반응이 좋자 불황을 벗어나려는 업자들이 너도나도달려들어 서울의경우 줄잡아 1백여개소나 생겼다。전세계 어디에가도 찾아보기 어려운 명소가 될판이다。그러나 그이면을 들여다보면 실망이 앞선다。대부분이 사기계약、분양평수조작、날림공사로 뒤얽혀 있고 소송、고소사태가 줄을잇기 시작한것이다。

이현상은「음식백화점」안에있는 개개 점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언제문을 닫을지 모르는 법적 취약성까지 가지고있는 것을 의미해 소비자들만 우롱당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음식백화점은 음식가지 수만큼이나 말썽이잦아「식송사기」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不況중好況 기발한 상술로 불황중에서도 호경기를 맞고 있는 음식백화점。

음식백화점에는 보통 15개~20개의 점포가 들어있어 서울의경우 약2천개의 음식점이 있는것으로 추산된다。

음식백화점은 시설주들이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1차로 빌어 시설을 갖춘후 다시상인들에게 임대분양을 해주는 형식인데 서울시내 1백개음식백화점의 시설을 20명내외의 시설주(轉貸主)들이 장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을 주장에 의하면 시설주들은▲무지한 부녀자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교묘하고도 간교한 사기계약을하거나▲분양평수를 속이고▲막대한 시설비를 받고도 형편없는 날림공사를해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아예 영업허가가 불가능、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영업까지 하게하고 있다는것이며 이미 30여개 음식백화점에서 분쟁이 생겨민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형사고소를한 상태다。

서울 鍾路區 體智洞 A음식백화점 임대상인 張英姬씨(56·여)등5명은「사기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張씨는 임대청약당시『전세보증금 8백만원만내면 월세도없고 영업허가취득등 일체의 준비를해주고 입주개업할수있게 하겠다』는 시설주의 말만믿고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않은채 3평6홉의점포를 계약했다。

그러나 며칠후 계약서를자세히 읽어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계약서에는 정작 보증금은 7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7백30여만원은 시설판촉비라는 명목인데다『시설판촉비는 계약만료후 임대인에게청구할수없으며 시설판촉비로 설치된 시설물에대해서도 계약만료후 권리를 주장할수없다』고돼있어 결국 계약만료후에 찾을수있는 돈은 70만원에 불과한 셈이됐다는것。

게다가 계약서에는『법률상 소유자가 필요하여 임대점포의 명도를요구할때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이를 명도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청구를 할수없다』는「독소조항」까지 삽입돼 있었다。

결국 입주상인들은 시설주가 언제라도 나가라고 통고만하면 보증금70만원만 쥐고 내쫓기는 신세가 된것이다。

이때문에 입주상인들은 시설주에게 처음약속을 어긴점과 독소조항을시정하고 새계약을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으나 시설주측은『임차인스스로 계약서에 날인한 이상 책임이 없다』고버티고있다。

서울 中區 乙支路3街 C음식백화점도 비슷한 경우。

임대상인들은 1차계약(분양약)때 계약금、중도금、잔금등의 명목으로 돈을 치렀으나 2차계약서를 받아보니 보증금은 일부일뿐 나머지는 모두 계약만료나 해지후 되찾을수 없는 시설판촉비였다。

게다가 임대상인들이 전체매장평수를 실측해본결과 66·9평이었으나 계약서상에 나타난 분양평수는 85평으로 18·1평을 늘려 분양했음을 알아냈다。

시설주는 시설비를 평당 1백10만원씩 받았기때문에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셈이다。

현재 C음식백화점 입주상인 17명은 공동시설주 林모씨등 4명을상대로 瓦浦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했고、12호 李庄淳씨(27)등 4명은별도로 서울민사 지법에 임대신청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中區明洞2街 M음식백화점은 시설주가 평수를 조작한게 들통나 차액을 환불해주며 항의하는 상인들을 무마하고 있으나 시설미로 영업허가조차 안나와 상인들이 불법영업을 하고있다。

이곳 역시 시설주가 시설비를 평당90만원씩받아 13개점포로부터 70평에 해당하는 6천3백만원을 받았으나 시설주는 시설일체를 하청업자에게 2천만원을 주고 공사를 맡겼음이 드러나 상인들을분노케 하고있다。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음식백화점은 보증금의 극히일부분만 되찾을수 있는 묘한 계약으로 돼있거나『시설비는 물론 시설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못한다』『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명도해야한다』는 등의 악랄한 독소조항이 있다는게 본사취재에서 밝혀지고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분쟁에 대해 우리 법체계가「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고있어 계약서내용이 완전히불리하도록 계약전의 구두약속과는 증인(피해상인)이 많아면 법적으로 사기혐의를 입증할수 있으며『임대인 요구에 의한 무조건 명도』의 조항도 민법상『임차인의 차임연체료가 2기에 달한때에만 명도를 요구할수있다』는동법6백40조와 6백52조 규정에 위배되는것으로 무효의계약이라고 밝히고있다。【崔鎭植기자】

쓰레기장 廢品주워 男便공부 돕던 主婦 後進불도저에 壓死

쓰레기더미에서 폐품을 주워팔아서 남편의면학을 뒷바라지해오던 주부가 쓰레기하치장에서 불도저에깔려 숨졌다。

25일 상오7시10분께 서울 麻浦區上岩洞448 蘭芝島 쓰레기 하치장에서 빈병과비닐폐품을 줍던 李起順씨(30·麻浦區上岩洞482)가 서울중기관리소 소속 불도저(운전사 韓相玉·43)에깔려병원으로 옮겼으나사망했다。

이날사고는 하치장의 정지작업을 하던 불도저가 후진을 하면서 쓰레기더미 아래서 폐품을 줍던 李씨를 발견하지 못한채 그대로 밀어붙여 일어났다。

숨진 李씨는 지난77년남편 徐昌台씨(30)와 결혼했는데 인쇄소를 경영하던 徐씨가사업에 실패한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부에 입학하자 3년전부터 남편의 공부를뒷바라지해왔는데 일하기 쉽게 지난2월 蘭芝島쓰레기하치장 부근 3평짜리판잣집에 남편 徐씨와 함께 이사해와 하루3~4천원정도의 폐품을 모아팔아왔다。

生物圈보전地域설정

雪岳山·光陵 유네스코에承認요청

우리나라 산림에도 생물권 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s)이 설정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5일 雪嶽山·光陵 2군데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하고 산림청등 정부관련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구체안을 마련、유네스코본부의 승인을 얻을 방침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10일내한한 유네스코자문관 던컨·프어박사(57·英국스퍼드大교수)와 국내학자들이 雪嶽山·智異山·漢拏山·光陵등 4개소를 현지답사한결과 내려진것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연내설정작업을 마친뒤 내년부터 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가게된다。

자연상태로 회복될수있는 생태계를갖춘 일정지역을 선정、지역내의 유전물질과 생태변화를 연구해 미래인류의 번영을 이룩하려는 이계획은 쓰레기·빈병을 줍는 종전의 피상적인 자연보호활동을 넘어서 한국의 생태학연구에도 획기적계기가 될것으로 평가되고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70년제16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인간과생물권(MAB)」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은 지난해 13명으로구성된 위원회(회장 金遵敏)를 설치한바 있다。

MAB는 생물권 천연자원의 합리적이용과 보전에관한 과학적·교육적 문제및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련성에관한 여러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둔 정부간 장기계획。「환경오염과 생물권에 미치는 영향에대한연구」등모두 14개의 프로젝트중에서도 생물권 보전지역의 설정·연구가 핵심이 되고있다。

郡守官舍서 신음하는 느티나무

◇수령 3백년의 느티나무가 육중한 시멘트담장에 허리가 졸려 신음하고있다。충북忠州市城內洞154의1 中原군수관사 담 벼락에서 수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높이20m, 둘레6m로 忠州지방에서는 가장 우람찬것으로 이름이 나있는 노거수。【忠州=聯】

카메라 告發

버스 언덕서 굴러 셋죽고 33명 負傷

【榮州=聯】26일 상오10시15분께 경북奉化郡春陽面石峴2里 속칭 돌고개에서승객40명을 태우고 강원도寧越에서 大邱로가던 동일여객소속경북5아1011호버스(운전사 崔덕호·32)가 20m 언덕아래로 굴러 버스에 타고있던 李정수씨(48·春陽面石峴里)등 승객3명이 그자리에서 숨지고 張성종씨(52·春陽面石峴里)등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이날 노폭4m의 가파른 고개의 오르막길을 달리던 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피하기위해 핸들을 꺾는 순간 노반이 부서지면서 언덕아래로 굴러떨어져 일어났다。

學術院 새회장에 申泰煥박사

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새로구성된 학술원이 25일상오10시 景福宮안 학술원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열고 새로운출발을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李奎浩문교부장관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뒤이어 거행된 회장단선거에서 새회장에 申泰煥박사(70·한국경제연구원장) 부회장에 李敏載박사(64·元原大총장)가각각선출됐다。

이번에 새로이 개편된 학술원은 지난4월 문화보호법이 개정됨에따라 종전회원들은 원로회원 또는 정회원으로 추대됐으며 신규로 44명이 임명돼 학술원 정원 1백명가운데 96명으로 구성되었다。

漢大 대학원장에 韓相準박사 임명

漢陽大는 25일 韓相準전KIST소장 (이학박사)을대학원장에 임명하고 金明燮대학원장은 상경대학장으로 전임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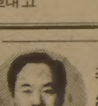
서울齒大교수 李有慶박사

대한치과의사회 명예회장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회장、서울대 치대교수등을 역임했던 李有慶박사가 25일상오11시 서울城東區廣壯洞 162 자택에서 급환으로별세했다。향년 74세。

李박사의 영결식은 27일상오10시 자택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장으로 거행되며 경기 南楊州郡 磨石 모란공원가족묘지에 안장된다。

연락처 [illegible]4875

亞洲大 총장에 李用熙씨 선임


李用熙전통일원장관(사진)이 25일 亞洲大 새총장으로 선임됐다。

문교부는 26일 李총장의 취임을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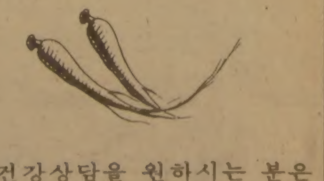
藝術院會長에 金東里씨선임

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새로구성된 예술원이 26일상오10시 景福宮內 예술원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開院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새예술원회장에 金東里씨(68·소설가)、부회장에 李海浪씨(65·연극연출가)를 선출하는 한편 문학분과위원장에 趙演鉉(61)、음악분과위원장에 金聖泰(71)、미술분과위원장에 裵吉基(64)、연예분과위원장에 李源庚씨(65)를 각각 뽑았다。

이번에 구성된 예술원은 정회원46명、원로회원 17명으로 돼있다。

구독신청은 533-2361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토론토시
노동의 날(월) 1981년9월7일
쓰레기 수거 변경일
수거일 (화) 9월8일, 1981
(수) 9월9일, 1981
신문지및 부피있는 물품은 9월9일(수)에는 수거치 않습니다
9월16일(수)까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토론토에는 19군데의 병과 쇠붙이 등을 재생시키는 장소가 있읍니다 더 이상의 사항을 아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전화 : 367-7742로 문의 바랍니다
R. M. BREMNER
P. Eng., F. I. C. E.
건설국장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Kabuki
JAPANESE STEAK HOUSE
"In a class by itself"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597-1255-6
Reservations accepted
STORE HOURS
평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 533-2361 MRS. KIM

쥬스바에서 파트타임여자 헬퍼구함
☎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키친헬퍼및 접시닦을 분 구함.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 환영
☎ : 960-6405 4 AVENUE ROAD. TOR.

베이비시터 구함 :
입주하셔서 베이비시터 하실분
☎ : 535-4441 미세스 김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스토아 헬퍼구함 : FULL TIME
YONGE과 EGLINGTON지역
☎ : 485 4353(아침9시~정오 전화바람)

가게 경험있는 남자 FULL TIME HELPER구함
☎ : 597-1115

도나스 SHOP에서 일할 캐시어 구함
남자분에 한함. 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경험있는 캐쉬어 구함 (풀, 파타임)
STEELE & DON MILLS 지역
☎ : 491-1931

집에서 여자용 세타를 짤수 있는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 영어회화 가능한분
☎ : 665-2265, 488-5170, 488-4498

식당 호모사(HOMOSA)
웨이트레스 구함 : 영어회화할 수 있는 분.
☎ : 466-2250

애기 봐줄사람 구합니다 : 출퇴근하셔도 좋고.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 : 244-2043, 248-6065

구 인(사람 구함)
공장에서 일하실분 구함. 주 나홀간 낮과 밤 시후트 워크
주소 : 971 MATHESON BLVD. MISSISSAUGA.
☎ : 625-1433

PHOTO샾에서 일할 여자분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746-2120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재봉틀 회사에서 직원모집
트레이닝 받으실분 환영. FINISHERS SMALL PARTS JOINERS. PRESSERS. CLEANERS AND EXAMINERS. SERVICE PERSONS
일하기 좋은 조건에 수입이 많음. 새기계만 사용.
일하는 시간 : 오전8시~오후4시
아니면 오전7시~오후3시
IRVING POSLUNS CO.,
637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5V 1A8
(4층의 MRS. FRANCIS를 찾으세요)

매매및 양도

야채가게 팝니다
☎ : 690-6967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유명메이커 제품만 취급하는
TV, 스테레오 비즈네스에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람.
직접와 보십시요.
☎ : 745-5555 미스타 전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천5백달러
3261 DUNDAS W.
☎ : 769-5956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6천달러
RENT 450달러
263 DUNN AVE.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그로서리스토아 매 매
☎ : 265-0400 MR. 이그나지오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스키 휴양지 부근에 있는 전망있는 스토아 매매
에드·구마가이에게 연락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Near Horseshoe valley Ski Resort.
Modern building, large living quarters, great potential. Present Gross $150,000.00. 14% mortgage. Asking $149,000.00.
For details contact Ed Kumagai.
CENTURY 21 Don Campbell Real Estate Limited
1-705-325-1366 or 1-705-325-9034.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매 매
서울식당을 싸게 팝니다. 리스 : 3년3개월
☎ : 532-0602
미스타. 정

버라이어티및 기프트가게 급매 :
주매상 $3500~$4000
☎ : 757-1097 미스타 한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세 탁 소 매 매
수입좋은 PICK-UP세탁소 매매 : 월세 $300, 월수입 $2000이상(단, 바느질 할줄 아는 분에게 팔고 싶습니다)
1716 QUEEN ST. E. 방문요망(프라자 안)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렌트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5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방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팁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 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아내의 장바구니 밑에 살짝 넣어놓는
주 간 여 성
행복한 결혼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엽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한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6-6032 김용환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8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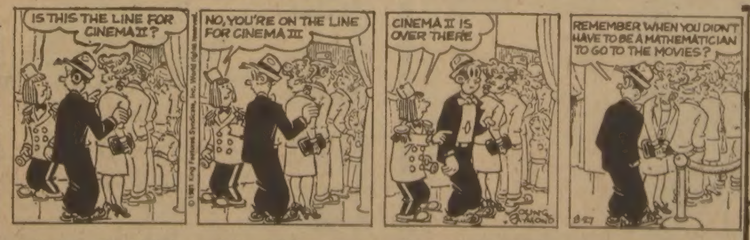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Am Coin Investments Ltd. - 25년간 경력 -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기가 제2 영화관 들어가는 줄이요?"
"아뇨, 제3영화관줄이에요"
"제2영화관은 저쪽입니다"
"반드시 수학자가 안돼도 영화를 보러갈수 있었던 시절이 언제였나 기억이나 하우?"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390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日本 記者의 눈

지난 16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脫日本을 꾀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하나 게재했다.

同紙의 서울주재 다무라(田村)특파원이 쓴 이기사는『戰後기자이 일본의 식민지배기간 36년을 넘어서게된 금년의 光復節을 맞아 한국에서는일본의「足跡」을 지워버리고「독립국」으로서의나아갈 방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면서『한예로 정부기관에서 일본식 행정용어 추방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문·방송이 앞을 다투어 한일관계를 올바로 보려는 기획을 제작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또 이제까지의 韓日관계는『식민지지배라는 과거의 부채를 짊어진 일본과 스스로 아직도 경제후진국을 자처하는듯한 한국의 자세가 합조된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나 한국은 이제 1인당 GNP가 1천5백달러를 넘어섰고 일본과의 대등의식은 급속히 높아졌다』고 쓰고 일본측의 대응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일본기자의 눈이 그동안의 한일관계를「빗나간 듯한 느낌을 가진 일본」과「후진국然하는 한국」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사실상 그간의 한일관계가 상호대등한 쌍무적 차원과는 동떨어진 跛行적관계를 보여왔음은 부인할수없다。양국관계를 施惠와 受惠의 측면으로 파악할때는 36년의 세월과함께 지나갔다。

이제 한국외교는「제2의 한일국교정상화」를 목표로 對日대등외교를 표방하고있다。

대등한 한일관계를 정립하자면 냉혹한 국제현실에 바탕두지않은 막연한 기대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잔재주는 용납되지 않는다。주어야 할것은 주고 받아야 할것은 받아내는「기브·앤드·테이크」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때 앞으로의 양국의 대응방법이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다무라기자의 전망은 옳은 듯하다。

한일대등외교의 시금석이 될 양국외상회담의 추이가 주목된다。【朴永韓기자·外信部】

怨恨살인추정
釜山토막屍

【釜山=聯合】속보=影島제2송도해변 토막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범행이 육상에서 이뤄진뒤 시체가 해변으로옮겨져 바다에 내다버린것으로보고 피살자의 정확한 신원파악을위해 釜山시내 가출인및 행방불명자의 연고자에대한 탐문수사를 집중적으로 펴고있다.

경찰은 24일 시체절단및 살해및 시체유기방법이 몹시 잔인한점으로 미뤄 이번사건은 원한이나 치정과 관련이 있고 치밀하게 계획된 2명이상의 범행으로 보고있다.

모눈종이 위의 生 <185>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노우트⑰

<어제 내린 비>에서와는 너무도 판이하게 엄숙해진 그의 표정에 나는 술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술좋을 트못 나는또 그의 말꽁지에 끼어 들었다。

『잠깐만。제게도 말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너무 빨리 거절당할 일이 두려워섭니다』

J씨는 우러난 홍차봉투를 두개다 접시에 꺼내 놓고 나를 올려다 보았다。

그러나 딱이 나는 그에게 할 말이 없었다。그의 구혼을 받아들일수 없는 사정으로 무엇을 입에올린다는 말인가。정몽의 유혹이 바로나였다는 고백은 차마 입에올릴수 없었고, 나는 호소하는 느낌으로 그에게 매달렸다。

『제발 이런 심각한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저한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따로 사신다는 것 말입니까。또 결혼에 한번 실패했었다는 사정 말입니까。미안합니다。얼마전 은행 현관 앞에서 만난 뒤 나름대로는 좀 알아보았읍니다。정직하게 말해서 미스 안에게 그런 특별한 사정마저 없었다면 용기를 내기가 퍽 어려웠을 거에요』

J씨는 말하면서 찻잔 두개에 설탕을 두스푼씩 넣었다。그리고는 찻잔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드십시다。아뭏든 서두를 일은 아니니까。용기를 내기가 퍽 어려웠을거라는 내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그건 내쪽이 너무 보잘것 없어서 한말이니까』

J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의 찻장으로갔다。그는 거기에서 마시다 남긴 술한 병을 찾아가지고왔다。술병의 마개를 열어 홍차에 칵테일을 만들며 그가 자조(自嘲)의 표정으로 다시 말했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은행에서 촉탁이라는 직책입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죠。시인이 피상한 절다 전공했죠?. 그러니까 시도 컴퓨터도 다 잉 말이 되고 있어요』

『아녜요。선생님은 훌륭한 시인이세요。회색<(灰色)노우트>연작(連作)은 너무 근사해요』

화제를 바꾸려고 내가 재빨리 말했다。서점에서 신간 잡지를 뒤적이다가 시전문지에 그가 그런 제목의 연작시(連作詩)몇편을 발표했던 일을 나는 기억해낸것이다。지극히 도회적인 암울한 분위기가 퍽 인상적이었으나 불행히도 기억에 남아있는 귀절은 없었다。

『그래요?』

그는 멋쩍은듯 내 시선을 피했다。나는 그가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짧은 모토지만 글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칭찬이상으로 기쁜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얼버리지。그런얘긴 그만 둡시다。쑥스러우니까。아까 어디까지 얘기 했지? 이사이 엄마 얘길 꺼내다 말았죠? 아 그 여잔 미국에 있어요。학위 과정을 밟으러 간 거죠。한때 나를 좋아해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생활의 닫힌 일상이 견딜수 없었던 모양이오。삼년을 함께 살았고, 떠난지도 삼년 좀 됐어요』

『그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내가 또 재빨리 참견했다。어쩌면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내게 느껴졌고, 이야기의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면 나에대한 그의 느닷없는 구혼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흐려버릴수 있을거라고 나는 엉뚱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J씨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엄마들같은 나도 그런 멜러물(物)의 주인공같은 몸으로 있었어요。하지만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을겁니다。그녀는 야심가이거든요。피·에이치·디를 땄고, 코리아의 궁색한 시인에게는 이제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되어버린 거요』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여러분 건강관리의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일체에 대한 하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정통침구의학의 정수인 사암오행 침구전공)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럴병원근처)
☎ : 439-6717 김 남 집